



합격의 기준

박문각임용

정혜영 전문상담

- ◆ 정혜영 전문상담 A형 모의고사 문제
- ◆ 정혜영 전문상담 B형 모의고사 문제
- ◆ 정혜영 전문상담 모범답안

2020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정혜영의 전문상담 모의고사

1차 시험	2교시 전공A	12 문항 40점	시험 시간 90분
-------	---------	-----------	-----------

응시자 유의 사항

- 문제지 및 답안지의 전체 면수와 인쇄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 답안지는 2면입니다.
- 답안지 모든 면의 상단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기재하고,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수험 번호의 해당란을 '●'로 표기하십시오.
◇ '●'로 표기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정 테이프를 사용해야 합니다.
- 답안의 초안 작성은 문제지 여백을 활용하십시오.
- 각각의 문항에 대한 답안은 해당 문항의 답안란에 작성하십시오.
◇ 답안지에는 문항 내용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 답안은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동일한 종류의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작성하십시오.
◇ 연필이나 사인펜 종류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답안을 작성할 때, 가로 선을 그어 답안란의 줄을 추가하거나 세로 선을 그어 답안란을 다단으로 구분할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 활용하십시오.
◇ 단, 가로 선과 세로 선은 해당 답안란 내에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답안을 수정할 때에는 반드시 두 줄(=)을 긋고 수정할 내용을 작성하십시오.
◇ 수정 테이프 또는 수정액을 사용하여 답안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문항에 대한 답안 내용 이외의 것(답안의 특정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밑줄이나 기호 등)은 일절 표시하지 마시오.
◇ 단, 일반적인 글쓰기 교정 부호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 문항에서 요구하는 내용의 가짓수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요구한 가짓수까지의 내용만 답안으로 작성하십시오.
◇ 첫 번째로 작성한 내용부터 문항에서 요구한 가짓수에 해당하는 내용까지만 순서대로 채점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답안은 채점하지 않으니 유의하십시오.**
◇ 다른 문항의 답안란에 작성한 부분(문항 번호를 임의로 수정하는 경우, 맞바꿔 작성한 부분을 화살표로 표시하는 경우 등 포함)
◇ 답안란 이외의 공간(옆면, 뒷면 등)에 작성한 부분
◇ 내용이 지워지거나 번지는 등 식별이 불가능한 부분
◇ 연필로 작성한 부분, 수정 테이프 또는 수정액을 사용하여 수정한 부분
◇ 개인 정보를 노출하거나 암시하는 표시(성명 및 수험 번호 기재란 제외)가 있는 답안지 전체
- 답안지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답안 작성 시간을 고려하십시오.
◇ 종료종이 울리면 답안을 일절 작성할 수 없으며, 답안지 교체 후에는 교체 전 답안지를 폐답안지로 처리합니다.
- 시험 종료 전까지 답안 작성을 완료하십시오.
◇ 시험 종료 후 답안 작성은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 답안을 작성하지 않은 빈 답안지에도 성명과 수험 번호를 기재·표기한 후, 답안지를 모두 제출하십시오.**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작성한 답안은 채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십시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2020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정혜영의 전문상담 모의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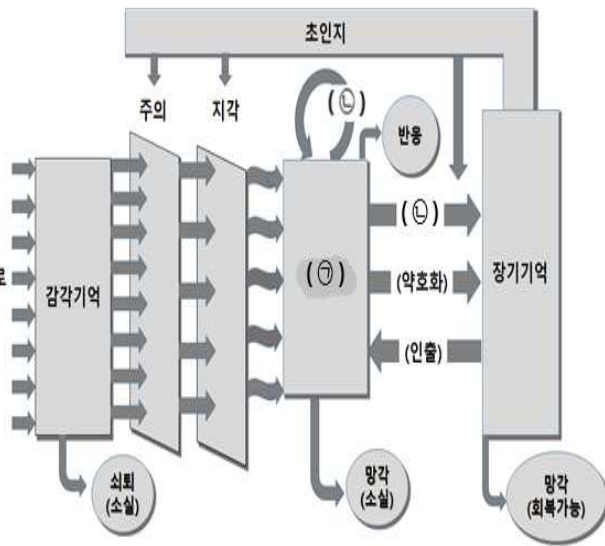
수험번호 : () 성 명 : ()

1차 시험	2교시 전공 A	12문항 40점	시험 시간 90분
-------	----------	----------	-----------

○문제지 전체 면수가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모든 문항에는 배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기입형 [1 ~ 4]

1. [심리학개론] (가)는 애킨슨과 쉬프린(Atkinson & Shiffrin)의 중다기억 시스템을 바탕으로 도식화된 정보처리 모형이다. (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 ㉡에 들어갈 개념을 각각 쓰시오.[2점]



- (나)
- ㉠은 배들리(Baddeley, 1986)에 의해 좀 더 능동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작업기억이라고도 한다. 이 단계의 기억 용량은 매우 제한되어 있어 기억정보가 수십초 이내 사라진다.
 - ㉡에서의 정보를 장기기억으로 전이시키기 위해 ㉠의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특정 정보를 기억 안에 유지시키기 위해 되풀이해 암송하는 것으로 일종에 정보를 재순환하는 과정을 말한다. 한편 장기기억으로 정보 전이를 좀더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 정보를 체계화하여 논리적 연결체계를 만드는 전략도 가능하다.

2. [성격심리학] 다음은 중학교 미술동아리 지도교사인 이교사가 전문상담교사인 김교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대화 내용이다. ㉠에 해당하는 이론의 명칭을 쓰시오.[2점]

이교사: 선생님, 제가 미술동아리를 지도하고 있는데요, 다들 그림을 배워본 적이 없는데 단지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 애들이 모인 동아리예요. 그래서 저는 동아리 활동 시간에 미술로 진로선택을 고려하고 있는 A그룹과 그냥 그림 그리고 싶어서 온 B그룹을 나누어 따로 지도를 했어요. 그리고 A그룹의 아이들에게 매주 주제를 주고 그림을 그려오게 한 뒤 잘 그린 그림은 교실 뒷 편에 걸어놓았어요. 그리고 순위를 매겨 학기말에 전체 순위가 5위 안에 드는 학생들에게 문화상품권을 주기로 했죠. 반대로 B그룹의 아이들에게는 아무런 지도도 하지 않았고, 아무런 과제도 내주지 않았어요. 그림에 대해 평가를 하지도 않았고, 보상을 주거나 약속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A그룹의 아이들은 점점 그림을 그리지 않으려고 하게 되고 B그룹의 아이들은 전보다 늘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하고 자발적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게다가 B그룹의 아이들이 A그룹의 아이들보다 점점 더 그림을 잘 그리게 되더라구요.

김교사: 선생님, 그와 같은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레퍼와 그린(Lepper & Greene)은 (㉠)을 제시해요. 이 이론은 내재적 동기로 시작된 행동도 외적 보상이나 제약이 제시가 되면 그 행동의 요인을 내적 요인이 아닌 외적 보상이나 제약, 위협 같은 외적 요인으로 귀인하게 된다는 이론이에요. 이로 인해 자발적인 동기들이 감소하고 해당 행동에 대한 흥미와 욕구가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죠.

3. [상담실습] 다음은 2019년 8월 20일에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이다. (가)의 ㉠에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과 (나)의 ㉡에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이 각각 무엇인지 쓰시오.[2점]

- (가)
- 제 13조 1항 : (㉠)은(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
 - 제 16조 1항 : (㉡)은(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나)
- 제 13조의2 1항 :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할 수 있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제 14조 4항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4. [상담이론과 실제] 다음은 전문상담교사인 김교사가 은지(고1, 여)를 상담하는 축어록 내용이다. 엘리스(A. Ellis)의 합리적정서행동치료의 ABCDE 모형을 바탕으로, ㉠, ㉡에 해당하는 것을 각각 쓰시오.[2점]

김교사: 은지야, 어떤 일이 있어서 상담을 의뢰했니?
 은 지: 최근에 수행평가로 쪽지시험을 보았는데, 수행평가 범위를 잘못 알아서 쪽지시험에서 답을 거의 다 써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수행평가를 망쳤죠. 그 때부터 저 자신한테 짜증이 나서 우울해지더라고요.

김교사: 너 자신에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지?
 은 지: ㉠ "멍청하다. 어떻게 쪽지시험 범위를 잘못 알 수가 있지? 이런 실수를 또 하면 어떡하지?"

김교사: 음.. 그렇구나. 마치 너는 절대 실수를 하면 안된다고 여기는 것 같구나.
 은 지: 당연하죠! 이런 실수를 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너무 손해잖아요. 공부를 안 해서 시험을 못 본 것도 아니고..

김교사: 그런데 은지야, ㉡ 너는 그런 실수를 해서는 안된다는 게 과연 논리적일까? 다른 사람들은 그런 실수를 종종 하잖나.
 은 지: 글썽요. 저만 하는 것 같은데요.

김교사: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그 정도의 실수는 종종 하기 마련이잖나. 아침에 학교갈 때 꼭 필요한 준비물을 깜빡하고 놓고 가는 것처럼. 게다가 "나는 절대 실수를 해선 안돼"라는 생각이 지금 너의 기분을 나이지게 하는데 도움이 될까?
 은 지: 그건 아니죠. 더 기분이 나빠지고 있으니깐요.

서술형 [5 ~ 12]

5. [집단상담 윤리] 다음은 전문상담교사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인관계 훈련집단을 운영한 과정에 대한 내용이다. (가) ~ (라) 중 비윤리적 행동에 해당하는 사례 2가지를 찾아 기호를 쓰고, 잘못된 부분을 바르게 고쳐 서술하시오.[4점]

(가)

상담교사는 집단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비밀보장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주고, 집단원들에게 비밀보장을 유지해야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비밀유지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하였다. 집단원들은 모두 집단이 종결될 때까지 비밀 보장 계약을 준수한 것으로 보여 상담교사는 집단회기 중이나 종결과정에서 비밀보장 준수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나)

상담교사는 집단상담에 참여한 학생들이 모두 자발적인 학생들이므로 사전동의서를 학생들에게 받고 집단상담을 진행하였다. 사전동의를 받을 때 집단상담의 목적과 성격, 집단상담에서 제공될 내용과 지켜야할 규칙, 비밀보장의 원칙 등을 알려주고 동의를 받았다.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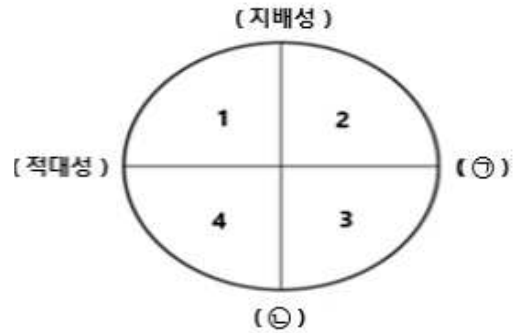
상담교사는 집단에서 이탈할 구성원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집단이탈의 절차와 규칙에 대해서 집단구성원들에게 안내하였다. 또한 집단운영 도중 민호가 연락없이 집단에 참여하지 않자 민호에게 연락을 취해 집단에 중도에 이탈할 경우 부작용에 대해 알려주고 다시 참여하도록 권하였다. 민호는 다음 회기에 다시 참여를 하였고 자신이 이탈하려고 했던 이유를 집단원들에게 설명하였다. 집단원들은 민호에게 중도포기 하지 말 것을 계속 권하였고 민호가 이를 부담스러워하자 상담교사는 집단구성원들이 권유하는 것을 차단하였다.

(라)

상담교사는 집단상담 운영도중 집단상담 진행이 원활하지 않는다고 느껴 집단상담 축여록을 풀어 슈퍼비전 자료를 만들어 슈퍼비전을 받았다. 이를 위해 사전에 집단원들에게 집단상담 과정을 녹음함을 알렸고 슈퍼비전을 받을 경우 비밀보장 예외 사항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집단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았으며, 슈퍼비전을 받기 전에 집단구성원들에게 슈퍼비전을 받을 것임을 사전에 알려주었다.

6. [성격심리학] 리어리와 바칸(Leary & Bakan)의 개념을 토대로 발전된 위긴스와 키에슬러(Wiggins & Kiesler)의 대인행동 원형모델이론을 바탕으로 (가)의 ㉠, ㉡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고, (나)의 민지와 성훈이가 속한 사분면이 어디인지를 쓰고, 그 근거를 사례와 연결하여 서술하시오.[4점]

(가)



(나)

민지(중3, 여)는 성적이 낮고 친구관계가 좋지 않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할 것이라고 여기지 않아 타인에게 무관심하고 무뚝뚝하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나도 기분 나쁜 것을 표시하지 않으며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행동하지만 이를 잘 수행해내지는 못한다. 성훈이(중3, 남)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학교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한다. 친구들과 선생님들한테 인정받는 것을 좋아해서 학급 반장 역할을 맡았으며 운동이나 게임, 자율동아리 활동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참여하려고 한다. 남들보다 뛰어나길 스스로 원하며 때때로 지나치게 자신을 자랑하고 우월함을 과시해 친구들로부터 핀잔을 듣기도 한다.

7. [성격심리학, 청소년심리학] (가)와 (나)는 전문상담교사인 김교사가 민지(고2, 여)와 지호(고2, 남)를 상담한 사례이다. 마르시아(Marcia)의 청소년 정체성 이론을 바탕으로, 민지와 지호의 정체성 유형의 특징을 위기와 전념의 측면에서 각각 사례와 연결하여 서술하시오.[4점]

(가)
민지(고2, 여)의 부모님은 민지가 원하는 꿈이나 진로에 대해 자주 의견을 묻고 민지가 바라는 대로 진로를 정하도록 돕는다. 그래서 민지는 늘 무얼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결정을 해왔으나 최근들어 자신이 뚜렷하게 하고 싶은 것이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다. 디자인과를 생각해보기도 하고, 소설가를 생각해보기도 하고, 국제구호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지만 자신이 어떤 것을 해야할지 아직 몰라 고민이 많다.

(나)
지호(고2, 남)의 어머니는 지호가 어렸을 때 가출해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으며, 지호의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로 매일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와 지호를 때리거나 일찌감치 잠을 잔다. 이로 인해 지호는 종종 가출을 하며 무단결석할 때도 많다. 지호는 자신은 자신의 처지에 무슨 꿈이냐며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진로를 정할 필요성도 못 느낀다고 말한다.

8. [집단상담] (가)는 전문상담교사인 김교사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참만남 집단을 운영한 축어록 내용이며 (나)는 해당 회기에 대한 김교사의 회기기록 내용이다. 코리(Gerald Corey)의 집단발달단계 이론을 바탕으로, (가), (나)의 내용에 해당하는 단계가 어떠한 단계인지를 쓰고, 해당 단계의 특징 3가지를 서술하시오.[4점]

(가)
김교사: 바람이가 조금 전부터 말이 없어졌네요. 마음이 쓰이는데 이유가 있나요?
바람: 네, 사실은 선생님이 운영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햇님이가 집단따돌림 당했던 얘기를 할 때는 시간을 1시간이나 들여서 지지와 격려를 해주셨는데 그 이전에 기운이가 부모님한테 혼난 일을 했을 때는 20분만 시간을 사용하셨잖아요. 불공평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교사: 그랬군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햇님: 저는 바람이의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가지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이나 어려움에 따라 할애되는 시간이 달라지는 거지 모든 사람이 똑같이 시간 분배를 해야한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나요?
기운: 바람이는 저의 친구인데요, 바람이가 제 편을 들어주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렇지만 친구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햇님은 지나치게 선생님과 자기를 챙겨주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고 바람이나 저처럼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배척하는 태도가 있어요. 지금도 그렇구요.
햇님: 아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운이야말로 사람들의 관심을 못 받아서 질투하는 것 아닌가요?

(나) < 회기 기록 >
오늘 집단에서 바람이와 햇님을 중심으로 2개의 그룹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개인 간의 갈등이 그룹 간의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모습이 자칫 집단리더와 집단에 대한 불신과 적개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집단과정에 대해 개방적으로 나눠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 < 하략 >

9. [진로상담] 다음은 전문상담교사인 김교사가 수연이(고2, 여)를 진로상담한 축어록 내용이다. 크롬볼츠(Krumboltz)의 사회학습 이론의 5단계 상담과정을 바탕으로 ㉠, ㉡, ㉢, ㉣이 각각 어떠한 단계에 해당하는지 서술하시오.[4점]

김교사: ㉠ 수연아,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진로란 것이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라한다. 이러한 예기치 못한 경험들에 대한 불안은 정상적인 것이고, 오히려 우리는 이것을 신나는 모험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

수 연: 음.. 그런가요?

김교사: 그럼, 그래서 말인데 ㉡ 너에게 힘이 넘친다고 느끼는 활동들이 그동안 뭐가 있었니?

수 연: 글썄요, 그림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은 없지만 제가 만화 캐릭터를 따라 그리거나 캐릭터를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보여주면 친구들이 좋아해요. 같이 캐릭터가 지고 깔깔대면서 얘기하면 기분이 좋아지구요.

김교사: 그렇구나. ㉢ 만화 캐릭터를 그리는 일이 네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본 일들이 있니?

수 연: 음.. 특별히 해본 것은 없어요. 그냥 공부시간에 지루할 때 끄적끄적 그려서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게 전부예요.

김교사: 그래. 만약에 네가 만화 캐릭터 그리는 일을 진로와 관련해서 좀더 진지하게 여겨볼 수 있다면 캐릭터 그리는 일에 대해 어떤 기회가 왔으면 좋겠니?

수 연: 글썄요.

김교사: 만약에 ㉣ 네가 만화 캐릭터 그리는 것을 좀더 집중적으로 해보고 그것을 친구들이나 주변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좀더 다양한 것을 그리는 일을 한다면 네 삶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수 연: 아무래도 이 일이 내 적성에 맞는다면 본격적으로 진로 중 하나로 생각해볼 것 같아요.

10. [심리검사] 다음 (가), (나)는 전문상담교사인 김교사가 진주(고2, 여)에게 벤더 계슈탈트 검사(BGT)와 로샤(Rorschach Test) 검사를 실시하는 대화 내용이다. (가), (나)에서 김교사의 잘못된 반응을 찾아 각각 2가지씩 찾아 모두 바른 반응으로 고쳐 서술하시오.[4점]

(가)

김교사: (모사 단계를 실시하면서) 여기 몇 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카드를 한 번에 한 장씩 보여드리겠습니다. 각 카드에는 간단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고 종이에 그대로 따라서 그리십시오. 되도록 빨리 그리도록 하세요. 이 검사는 미술능력의 검사는 아니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정확하게 그리십시오. 용지는 이 정도입니다(카드더미를 보여준다)

진 주: 자나 지우개를 사용해도 되나요?

김교사: 자는 사용하면 안됩니다. 지우개는 사용해도 됩니다.

진 주: (김교사가 세로로 제시한 종이를 가로로 놓고 그린다)

김교사: (진주의 종이를 다시 세로로 돌려놓는다) 이렇게 놓고 그리세요.

진 주: (다시 종이를 가로로 돌려놓는다)

김교사: (진주의 종이를 다시 세로로 돌려놓는다) 가로로 놓고 그리면 안됩니다.

진 주: 도형을 종이 가운데부터 그려야 하나요?

김교사: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나)

김교사: (연상단계에서 첫 번째 카드를 제시하면서) 이것이 무엇으로 보입니까?

진 주: 잉크 블롯처럼요.

김교사: 이 카드에서 어떠한 형태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보입니까?

진 주: 저를 무섭게 쓰아보면서 이빨을 드러내는 악마의 얼굴이 보이네요. (침묵) 더 해야 하나요?

김교사: 좀 더 충분하게 보도록 합시다. 제 생각에 당신이 좀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 주: 다른 사람들도 여러 개로 반응하나요?

김교사: 네. 대부분 한 개 이상 대답 합니다.

진 주: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요.

김교사: (두 번째 카드를 제시하면서) 무엇으로 보입니까?

진 주: (.....) 정말 아무것도 안 떠오르는데요.

김교사: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개 이상 대답 합니다. 떠올려 보세요.

11. [아동심리학] (가), (나)는 도덕행동을 하는 송호(초6, 남)와 수호(초6, 남)의 사례이다. 사례를 읽고 조건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4점]

(가)

송호는 명수와 진수가 반에서 서로 주먹다툼을 하여 담임선생님이 둘 모두 교실 뒤로 가서 벌을 서고 청소를 하도록 훈육을 하자 담임선생님께 “명수가 친구들의 돈을 훔친 뒤 가출할 계획을 가진 것을 진수가 알고 이를 말리다가 주먹다툼을 하게 된 것이다. 폭력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은 잘못이지만 진수는 친구들의 피해를 막고 명수가 가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명수와 다툰 것이니 진수를 명수와 똑같이 벌을 주어진 안된다.”라고 건의하였다.

(나)

수호는 평소에 친구들을 도와주면 착한 아이이고 친구들을 괴롭히면 나쁜 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수호는 이번에 전학을 온 민수가 친구가 없어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것을 힘들어하자 민수의 친구가 되어주고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를 보고 담임선생님과 친구들이 수호는 “남을 배려하는 좋은 사람이다.”라고 칭찬을 해주자 무척 기뻐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계속 친구들을 도와주는 행동을 하였다.

< 조건 >

- 피아제(Piajet)의 도덕발달이론을 바탕으로, (가)의 송호가 어떠한 단계에 해당하는지 쓰고, 그 근거를 사례와 연결하여 서술하시오.
- 아이젠버그(Eisenberg)의 친사회적 도덕추론 수준이론을 바탕으로, (나)의 수호가 어떠한 단계에 해당하는지 쓰고, 그 근거를 사례와 연결하여 서술하시오.

12. [가족상담] 다음은 전문상담교사인 김교사가 나영(중3, 여)이 상담하는 축어록 내용이다. 해결중심상담 이론을 바탕으로 ㉠에 해당하는 기법이 무엇인지 쓰고, 해당 기법의 목적 3가지를 사례와 연결하여 서술하시오.[4점]

나 영: 저는 정말 머리가 나쁜가봐요. 이번 시험도 망했어요.

김교사: 저런, 이번 시험이 어려웠나보구나.

나 영: 아니에요. 저는 시험이 어렵든 쉽든 늘 망쳐요. 머리가 나쁘데다 시험 때 집중하지도 못해서 늘 실수를 하죠. 저는 항상 그랬어요. 공부한 것만큼 나온 적도 없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성적이 나아지질 않아요.

김교사: 그래. 그래왔었구나. ㉠ 그런데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올 수 있었니?

나 영: 공부를 하지 않으면 어떡해요? 더 나빠질텐데. 그래도 공부를 하면 성적이 아예 푹 떨어져서 나오지는 않고 평소만큼은 나오니까 공부를 하기는 되요. 그리고 암기과목들은 성실하게 하기만 하면 성적이 좋게 나올 때가 있어서 열심히 전달까지 달달 외워요. 그러면 다른 과목을 망쳐도 암기과목 덕에 본래 성적만큼은 나오죠.

김교사: 그래. 그 얘기는 네가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과 성실함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구나.

나 영: (울컥하며) 네. 그런 점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어서 계속 평균 점수를 유지해온 것 같아요.

< 수고하셨습니다! >

2020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정혜영의 전문상담 모의고사

1차 시험	3교시 전공B	11 문항 40점	시험 시간 90분
-------	---------	-----------	-----------

응시자 유의 사항

- 문제지 및 답안지의 전체 면수와 인쇄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 답안지는 2면입니다.
- 답안지 모든 면의 상단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기재하고,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수험 번호의 해당란을 '●'로 표기하십시오.
◇ '●'로 표기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정 테이프를 사용해야 합니다.
- 답안의 초안 작성은 문제지 여백을 활용하십시오.
- 각각의 문항에 대한 답안은 해당 문항의 답안란에 작성하십시오.
◇ 답안지에는 문항 내용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 답안은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동일한 종류의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작성하십시오.
◇ 연필이나 사인펜 종류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답안을 작성할 때, 가로 선을 그어 답안란의 줄을 추가하거나 세로 선을 그어 답안란을 다단으로 구분할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 활용하십시오.
◇ 단, 가로 선과 세로 선은 해당 답안란 내에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답안을 수정할 때에는 반드시 두 줄(=)을 긋고 수정할 내용을 작성하십시오.
◇ 수정 테이프 또는 수정액을 사용하여 답안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문항에 대한 답안 내용 이외의 것(답안의 특정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밑줄이나 기호 등)은 일절 표시하지 마십시오.
◇ 단, 일반적인 글쓰기 교정 부호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 문항에서 요구하는 내용의 가짓수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요구한 가짓수까지의 내용만 답안으로 작성하십시오.
◇ 첫 번째로 작성한 내용부터 문항에서 요구한 가짓수에 해당하는 내용까지만 순서대로 채점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답안은 채점하지 않으니 유의하십시오.**
◇ 다른 문항의 답안란에 작성한 부분(문항 번호를 임의로 수정하는 경우, 맞바꿔 작성한 부분을 화살표로 표시하는 경우 등 포함)
◇ 답안란 이외의 공간(옆면, 뒷면 등)에 작성한 부분
◇ 내용이 지워지거나 번지는 등 식별이 불가능한 부분
◇ 연필로 작성한 부분, 수정 테이프 또는 수정액을 사용하여 수정한 부분
◇ 개인 정보를 노출하거나 암시하는 표시(성명 및 수험 번호 기재란 제외)가 있는 답안지 전체
- 답안지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답안 작성 시간을 고려하십시오.
◇ 종료종이 울리면 답안을 일절 작성할 수 없으며, 답안지 교체 후에는 교체 전 답안지를 폐답안지로 처리합니다.
- 시험 종료 전까지 답안 작성을 완료하십시오.
◇ 시험 종료 후 답안 작성은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 답안을 작성하지 않은 빈 답안지에도 성명과 수험 번호를 기재·표기한 후, 답안지를 모두 제출하십시오.**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작성한 답안은 채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십시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2020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정혜영의 전문상담 모의고사

수험번호 : () 성 명 : ()

1차 시험	3교시 전공 B	11문항 40점	시험 시간 90분
-------	----------	----------	-----------

○문제지 전체 면수가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모든 문항에는 배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기입형 【1 ~ 2】

1. [상담이론과 실제] 다음은 전문상담교사인 김교사가 민주(고1, 여)를 상담하고 있는 축어록 내용이다. 프랭클(V. Frankl)의 의미치료 이론을 바탕으로 김교사가 적용하고 있는 ㉠, ㉡의 치료기법이 무엇인지 각각 쓰시오.[2점]

민 주: 너무 우울하고 사는 게 무의미하게 느껴져요. 요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죽고싶단 생각만 해요.

김교사: 무슨 일이 있었니?

민 주: 저한테는 소영이라고, 중학생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단짝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소영이가 한 달 전부터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저를 따돌리더라고요. 화도 내보고 울기도 해보고 용서를 빌기도 해봤는데 모두 소용이 없었어요. 그동안 제가 싫었는데 억지로 같이 놀아줬던 거고, 제가 의존적이고 유치해서 싫다네요. 그리고는 저에게 완전히 절교를 선언했어요.

김교사: 정말 힘들겠구나. ㉠ 민주야, 우선 너 자신에게 이렇게 말을 해볼래? “나는 우울감과 무의미함에 희생당하지 않을 거야. 나에겐 자유의지가 있고 이러한 기분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 나는 선택할 수 있고 목표를 향해 행동할 수 있는 나의 의지를 믿을 거야.”라고. 그리고 그 말을 하면서 너의 의지의 힘에 계속 집중을 해보렴.

민 주: (김교사가 제시한 말을 반복한다.) 조금 나은 것 같아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김교사: 그래, 잘 했구나. 민주야, ㉡ 안타깝게도 우리는 소영이가 너를 따돌리고 너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한 일들을 바꿀 수는 없단다. 그렇지만 그 사건에 대해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볼 수는 있단다. 만약 너에게 그러한 말과 행동을 했던 소영이를 계속해서 사귀어간다면 어땠을 것 같니?

민 주: 오랫동안 사귀던 친구에게 유치해서 싫었고 이제까지 억지로 놀아줬다라는 말을 하는 친구라면, 지금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언젠가 저를 따돌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음... 생각해보니 지금이 진정한 우정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소영이만 지나치게 챙겼었는데 좀더 배려심이 있는 좋은 친구들을 사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 [상담이론과 실제] 다음은 우볼딩(R. Wubbolding)의 상담 절차에 따라 전문상담교사인 김교사가 한수(중3, 남)와 상담한 축어록 내용의 일부이다. (가), (나)의 상담과정이 어떠한 단계에 해당하는지 쓰시오.[2점]

(가)

한 수: 매일 1시간 30분씩 공부를 하되, 과목마다 범위와 공부방법을 정해서 계획과 진도에 따라 공부를 해가야 할 것 같아요.

김교사: 그래, 그 방법을 좀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만들어 볼까?

한 수: 월요일은 국어, 화요일은 영어.. 이렇게 과목을 정하구요, 문제집이 과목마다 한 권씩 있으니 하루에 5장씩 풀고 해당 내용을 복습하고 암기하는 거예요.

김교사: 좋은 방법이구나. 이 방법을 실행하는 데 포기하지 않도록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움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한 수: 계약서같은 것을 작성할까요?

김교사: 그러도록 하자. 지금 네가 실행하기로 약속한 것을 다시 말해볼래? 그러면 선생님이 그 내용을 종이에 적고 나와 내가 함께 서명하도록 하자.

(나)

한 수: 이번 기말고사에는 꼭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매일 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서 교과서를 읽고 암기를 하고 있는데, 뭔지 모르게 전혀 공부가 잘되는 것 같지 않아요. 자꾸 마음이 불안해져만 가요.

김교사: 음.. 그렇구나. 교과서를 읽고 암기하는 너의 방법이 성적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니?

한 수: 글썸, 잘 모르겠어요. 어느날은 국어를 하다가 어느날은 영어를 하고.. 뭔가 계획성 없이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김교사: 그런 방법으로 공부하는 이유가 뭐니?

한 수: 마음이 급해서요. 뭐든 빨리 많은 내용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때그때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를 해요.

김교사: 그 방법이 공부를 해가고 있다는 자신감과 충족감이 들게 하는 데 도움이 되니?

한 수: 전혀 그렇지 않아요.

김교사: 그럼 좀더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

서술형 [3 ~ 11]

3. [학습심리학] 다음은 전문상담교사인 김교사가 영호(고1, 남)를 상담한 내용의 일부이다. 반두라(A. Bandura)의 사회인지이론의 자기효능감의 원천 4가지를 사례와 연결하여 서술하시오. [4점]

김교사: 이제 곧 종결인데, 영호야. 그동안 선생님이 보기에 네가 많이 변한 것 같아. 지금 네 마음이 좀 어땠니?

영 호: 예전에는 축구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만 가득했어요. 제가 축구 선수로 잘할 수 있을까, 경기에 나갔을 때 골을 넣을 수 있을까... 지난 대회처럼 실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만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상담을 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모두 사라지고 이제는 언제 경기에 나가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교사: 맞아, 네가 정말 많이 노력했지. 최근에는 경기에서 MVP도 되었지 않았니? 어떻게 그처럼 변화할 수 있었던 것 같니?

영 호: 친구들이 많이 도움이 됐어요. 같이 축구를 하는 친구 중에 민수라는 애가 있는데 그 친구도 저처럼 어느날 갑자기 슬럼프가 와서 경기력이 떨어져서 축구를 그만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민수가 그럴 때 오히려 훈련을 더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매일 꾸준히 연습에 매진하더니 결국 경기에서 2골을 넣어 팀을 역전시킬 수 있게 해줬어요. 그 친구를 보면서 저도 할 수 있겠다, 생각했죠. 그리고 나서 생각해보니 제가 중학교 내내 팀을 우승으로 이끄는 공격수였는데 갑자기 실력이 없어질 수는 없겠다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있던 실력이 갑자기 없어질 순 없는 거다. 네 마음의 문제다. 너는 지금도 변함없이 최고의 공격수이다.”라고 말해준 것이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랬더니 그 전에는 뭔가 무기력하고 우울했던 감정이 시원해지면서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이 밝아지더라고요.

4. [집단상담] 다음 (가), (나)는 전문상담교사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한 참만남집단에 참가한 소라(고2, 여)와 무영(고2, 남)이의 참가소감문 내용의 일부이다. 얄롬(I. Yalom)이 제시한 치료적 요인 11가지 중 소라와 무영이에게 작용한 치료적 요인이 무엇인지 각각 쓰고, 해당 치료적 요인의 효과를 1가지씩 서술하시오.[4점]

(가) < 소라의 집단상담 참가 소감문 >
 집단상담에 참여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성격으로 보이는지 알 수 있어서 좋았다. 나는 그동안 내가 공격적이고 차가워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내 말투와 표정이 다른 사람에 다가가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집단원들은 겉보기에 인상은 무서웠지만 실제로 얘기를 해보니 다정하고 의리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인해 손해를 많이 보겠다는 피드백을 많이 해주었다. 그리고 좀더 자신이 타인에게 어떤 다정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려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해주었다. 그동안 학기 초마다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이유들을 알게 되어 도움이 많이 되었다.

(나) < 무영이의 집단상담 참가 소감문 >
 집단리더가 집단구성원들이 도전을 할 때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솔직하고 구성원들의 마음이 불편했던 이유들을 묻는 모습을 보고 많이 배웠다. 나는 상대방이 내게 기분 나쁜 말을 할 때마다 참지 못하고 화를 냈는데 집단리더의 침착하고 사려깊은 행동들을 보고 존경하게 되었으며 그와같은 대처방법과 태도들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또한 집단구성원들이 다른 사람들의 힘든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공감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는 법에 대해 배우려고 노력하였고 비슷해져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5. [진로상담] 다음은 전문상담교사인 김교사가 유미(고1, 여)를 진로상담한 면담 내용이다. 해켓(Hackett) 등의 사회인지진로 이론(SCCT)을 바탕으로,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상담 목표를 서술하고, 김교사가 ㉠, ㉡, ㉢에서 개입하고 있는 개입전략이 무엇인지 각각 서술하시오.[4점]

■ 의뢰경위 : 유미는 진로를 어떻게 선택해야할지 알 수 없어 상담을 의뢰함.

■ 면담내용 : 어렸을 때는 배우랑 학교선생님이 되고 싶었다. 그런데 자신이 예쁘지도 않고 배우로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알고 있어 배우가 되는 것을 포기하였다. 학교선생님도 되고 싶었으나 고등학교에 들어온 이후로 성적이 나빠지고 자신이 공부를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기지 않아 선생님이 되는 것도 포기하였다. 게다가 부모님이 건강이 나빠져서 자신이 빨리 취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 회사원이 되고자 하는데 어떠한 전공을 선택하는 게 좋을지 몰라 고민이 된다.

■ 개입내용 : ㉠ 김교사는 직업카드 묶음을 유미에게 제시하고 유미가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선택할 직업과 성공을 확신할 수 있다면 선택할 직업과 어떠한 경우라도 선택하지 않을 직업으로 분류하고 탐색하도록 도왔다. 또한 김교사는 ㉡ 유미의 부모님의 건강이 유미가 대학을 가지 못하고 바로 취업을 해야할 정도로 위급한 정도인지를 평가해보고 유미가 취업하기를 부모님이 원하는지도 살펴보았다. 그리고 ㉢ 김교사는 유미가 과거에 연기와 공부 측면에서 성취한 경험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성취경험에 대해 능력으로 귀인하도록 도왔다.

6. [진로상담] 다음은 전문상담교사인 김교사가 진수(중1, 남)를 진로상담한 축어록 내용이다. 갓프레드슨(L. Gottfredson)의 직업포부 발달이론을 바탕으로 조건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4점]

김교사: 진수야, 지난 시간에 내가 갖고 싶은 직업에 대해 몇 가지 찾아오라고 했는데 찾아갔고 왔니?

진 수: 네.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김교사: 무슨 뜻이니?

진 수: 저희 아버지는 음식점을 하시는데 최근에 장사가 잘 안되셔서 식당을 접으셨어요. 그리고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신데 맨날 돈이 없으니 어머니나 저보고는 알아서 살으라고 하세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것은 로봇이거든요. 그런데 로봇공학자가 되려면 해외 유학을 다녀오거나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가야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집은 학비를 만들 어줄 수도 없고 저는 공부를 못하잖아요.

김교사: 그렇구나. 혹시 다른 직업을 생각해본 것은 있지?

진 수: 저는 나중에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럴려면 ㉠ 기업가가 되거나 의사같은 직업을 하면 좋을텐데 그 직업도 저희 집 경제적 형편과 제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냥 다 포기했어요. ㉡ 어머니가 저보고 돈을 잘 벌려면 안정적인 직업으로 간호사도 좋다고 하시고, 요리를 잘 하니 요리사가 되어보라고도 하시는데 여자들이 하는 직업이라 싫어요. 그래서 자동차 정비사나 포크레인 기사를 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어요.

< 조건 >

- 직업포부 발달 단계 중, ㉠에서 알 수 있는 진수의 발달단계가 무엇인지 쓰고, 해당단계에서 진로대안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쓰시오.[2점]
- 진로대안을 포기하기 위한 타협과정을 서술하고, 진수가 ㉡과 같은 타협을 선택한 이유를 서술하시오.[2점]

7. [가족상담] 다음은 찬혁이(고2, 남)의 가족들의 대화 내용이다. 사티어(Satir)의 경험적 가족치료 이론을 바탕으로, 찬혁이 누나와 찬혁이 아버지의 의사소통 유형에서, 각 유형의 자원이 무엇인지 각각 1가지씩 쓰고, 각 유형의 내적 경험 1가지씩을 각각 서술하시오.[4점]

찬혁이는 방학이 되어 친구들과 노느라고 며칠간 연이어 늦게 귀가하였다. 마침 찬혁이 아버지도 회사 동료들과 친구들과의 잦은 회식과 만남으로 매일같이 늦게 귀가하였다. 이에 찬혁이와 찬혁이 아버지를 혼자서 기다리던 찬혁이 어머니가 집에 함께 들어온 찬혁이와 찬혁이 아버지에게 화가 난 어투로 대화를 시작하고 있고 찬혁이 누나와 할머니가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내용이다.

어머니: 찬혁아! 엄마가 좀 일찍일찍 다니라고 했잖아! 너는 엄마 말에 신경이나 쓰니? 당신도 그래! 당신은 나한테 관심이나 있어? 내가 혼자 계속 기다리는 게 신경 쓰이지도 않아?

누 나: 엄마, 회사 회식은 거절할 수 없는 거잖아요. 회식은 업무의 연장이에요. 이건 너무 잦은 회식자리를 만드는 회사의 문제예요. 그러니 이 상황이 좀 지나면 아버지도 일찍 들어올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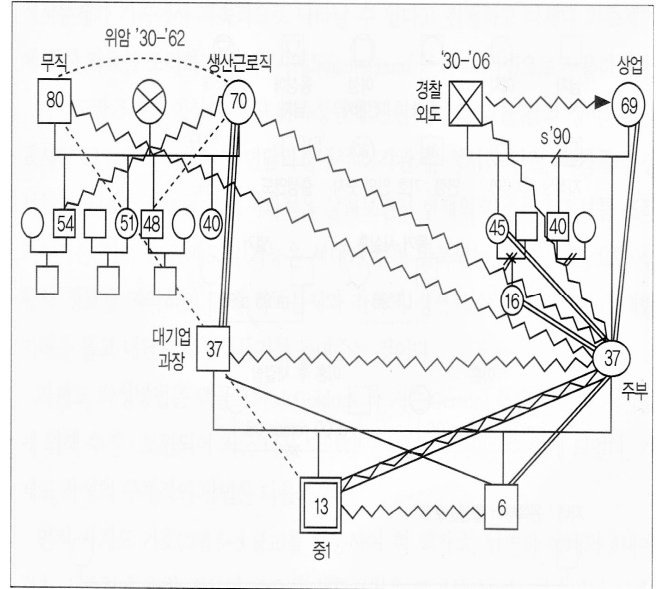
찬 혁: (화가 난 엄마의 눈을 바라보면서) 아니예요, 엄마. 엄마 많이 신경 써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친구들이랑 어울리지 못해서 친구들이랑 노는 시간이 너무 좋았나 봐요. 거기에 정신 팔려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엄마가 나 들어올 때까지 쉬지도 못하는데... 엄마 마음을 생각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아버지: 아니, 오늘따라 귀엽게 투정을 다 부리고? 내가 예쁜 우리 와이프 사진 한 장 찍어줄까? (핸드폰을 뒤적이다가) 아, 나 잠깐 화장실 가야 돼.(화장실로 간다)

할머니: 이게 다 내 잘못이다. 내가 찬혁이 어미를 좀 신경써야했는데.. 가족들을 못 챙긴 내 탓이다. 내가 잘못했다. 애미야.

8. [가족상담] (가)는 전문상담교사인 김교사가 상담하는 성훈이(중 1, 남) 가족의 가계도이며, (나)는 김교사가 성훈이를 면담하면서 가계도를 해석한 사례요약서이다. 맥골드릭(McGoldrick)의 가계도 표준기호를 바탕으로 (가)의 가계도를 (나)에서 잘못 해석하고 있는 부분 2가지를 찾아, 바르게 고쳐 서술하시오[4점]

(가)



(나)

성훈이 친할아버지는 아내와 사별한 후, 성훈이 친할머니와 재혼을 하였으며, 성훈이 아버지는 막내아들이다. 성훈이 외할아버지는 성훈이 외할머니를 학대하였으며, 90년에 이혼한 후, 06년에 사망하였다. 성훈이의 큰이모는 이혼 후 재결합을 하였는데 성훈이 어머니와 친밀한 사이이다. 성훈이 어머니는 자신의 부모들과 삼각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성훈이 어머니는 성훈이와 융합-적대 관계에 있으며, 남편과의 갈등관계에서 성훈이에게 감정반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9. [특수아상담, 이상심리학] 다음은 전문상담교사인 김교사가 품행장애로 진단된 형우(고1, 남)를 면담한 사례 내용이다.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DSM-5)의 진단기준을 바탕으로 다음 조건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4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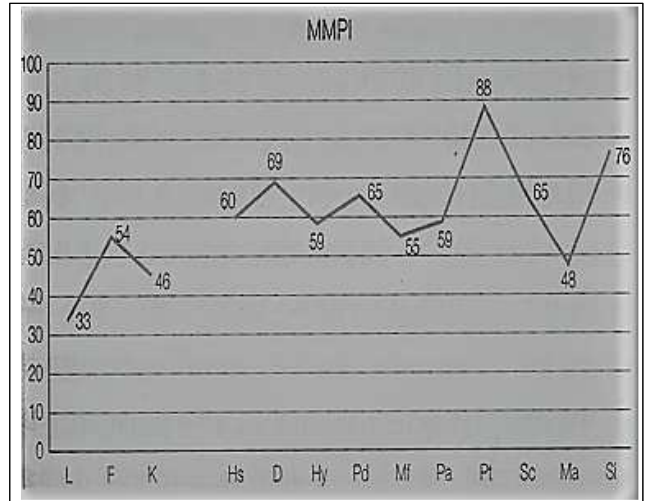
- 의뢰경위: 형우는 친구들에 대한 폭력행위 및 잦은 일탈행동으로 인하여 학폭위에 신고됨에 따라 상담에 의뢰됨
- 면담내용: 형우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폭력서클에 가입하여 같은 학교 친구들이나 다른 학교 친구들에게 자주 폭력행위를 해왔으며 지난 달에도 친구들을 때려 학폭위에 신고를 당했다. 또한 ㉠ 친구들을 폭행할 때 벽돌로 머리를 치거나 흥분하면 칼을 휘두르기도 해 주변친구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한다. 이러한 심각한 위협적인 행동은 1년에 1번씩은 발생해 고등학교 1학년이 된 이후 형사고발을 당하였다. 또한 형우는 3개월 전 피해자가 집안에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협박해 금품을 요구하여 훔치고 달아나 이에 대한 형사고발을 당해 재판 중에 있으며, 이러한 형우의 행동은 형우의 보고에 의하면 1년에 2번 이상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형우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자주 외박을 하였으며 현재까지도 거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 친구 집에서 거주하는 등 외박과 가출을 반복적으로 한다.
- 부모상담: 형우의 부모님의 보고에 의하면 형우의 이러한 문제행동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나타났으며, 형우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학교 활동이나 학업 수행에 대해 관심이 없어 늘 성적이 낮았고 자주 무단결석을 해왔다고 한다. 또한 중학생 때부터 자신의 폭행으로 인해 사람이나 동물이 심하게 다치고 고통을 호소해도 감정적으로 동요되지 않으며 타인의 아픔에 대해 신경쓰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한다.

< 조건 >

- 품행장애의 전체 진단기준 3가지 중 < 면담 내용 >에서 나타난 형우의 문제 행동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진단기준 1가지를 서술하시오.[1점]
- ㉠을 근거로 형우의 품행장애의 심각도가 무엇인지 쓰시오.[1점]
- 품행장애의 명시자에 해당하는 '제한된 친사회적 정서 동반'의 진단기준을 서술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형우의 < 부모상담 > 내용에서 찾아 서술하시오.[2점]

10. [심리검사] (가)는 전문상담교사인 김교사가 선호(중3, 남)에게 실시한 MMPI-A 검사 결과이며, (나)는 선호의 배경정보와 SSCT 결과이다. (가)에서 임상적으로 유의미하게 상승한 척도(표준편차 2이상으로 상승한 척도) 2가지에 근거하여, 상승한 척도별로 선호의 임상적 특징에 해당하는 것을 '배경정보'와 'SSCT 결과'에서 각각 1가지씩 찾아 서술하시오.[4점]

(가)



(나)

- 배경정보 : 선호는 최근에 어머니가 암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신 이후부터 눈물이 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다. 그래서 선호는 공부가 하고 싶지 않다. 어머니가 돌아가실까봐 걱정되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과연 자신이 혼자서 잘 살아갈 수 있을지 너무 염려된다고 말 하였다. 그러나 선호는 이런 마음을 친구들에게 말 하면 눈물부터 흘릴 것 같아, 점점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불편해진다고 한다. 선호는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받아들이 수가 없어 화가 난다고 하며, 때때로 머리가 심하게 아프다고 한다.
- SSCT 결과 일부
 - 나의 어머니는 나의 지지자이자 든든한 보호자다.
 - 다른 가정과 비교해서 우리 집안은 불행하다.
 - 완전한 남성상은 남에게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 나의 가장 큰 결점은 요즘들어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 행운이 나를 외면했을 때 모르겠다.
 - 내 생각에 참다운 친구는 없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11. [심리검사] 다음은 소영이(6세 9개월, 초1, 여)의 K-WISC-V 검사 결과의 일부이다. 다음 조건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4점]

지표	지표점수	비교점수	차이	임계값	강/약
언어이해 (VCI)	111	108.8	2.2	12.96	-
시공간 (VSI)	103	108.8	-5.8	11.68	-
⊕	109	108.8	0.2	9.12	-
작업기억 (WMI)	100	108.8	-8.8	9.65	-
처리속도 (PSI)	121	108.8	12.2	11.42	S

VSI-PSI의 지표점수간 임계값은 14.13, WMI-PSI의 지표점수간 임계값은 12.55로, 0.0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 조건 >

- ⊕에 해당하는 기본지표 명칭을 쓰시오.[각 1점]
- 기본지표점수의 평균(MIS)인 비교점수를 근거로 처리속도지표가 강점인 근거를 서술하시오.[각 1점]
- 시공간 지표와 처리속도 지표의 합산점수 간 차이를 비교하여 소영이의 지적 특징을 서술하시오.[각 1점]
- 작업기억 지표와 처리속도 지표의 합산점수 간 차이를 비교하여 소영이의 지적 특징을 서술하시오.[각 1점]

< 수고하셨습니다! >

2020학년도 대비 정혜영 전문상담 모의고사

전문상담 A형 해답지

기입형

1. 정답 : ㉠ 단기기억 ㉡ 시연

해설 : 각 1점

1) 기억과정

① 기억의 단계



② 애킨슨과 쉬프린(Atkinson & Shiffrin, 1968)의 중다기억 시스템(기억의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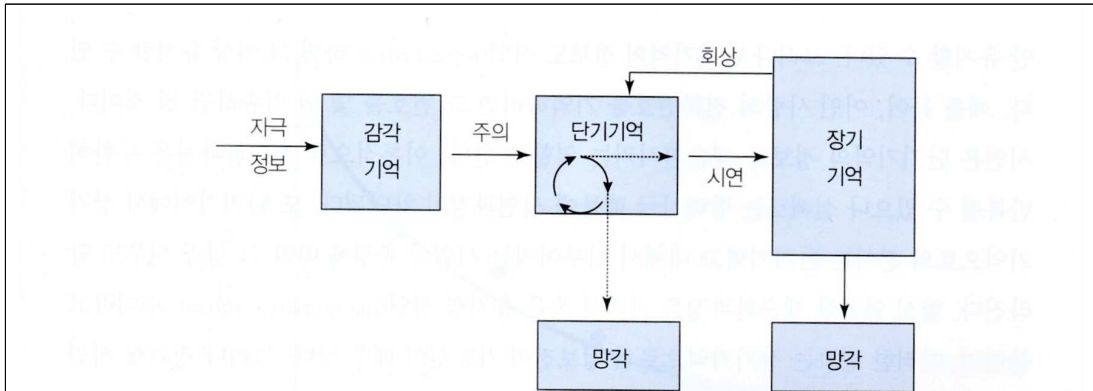


그림 6-1 | 중다기억 모델

기억은 세 가지 정보저장고로 구성되어 있다. 감각기억은 수많은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으나 그중 일부만이 선택될 수 있다. 단기기억은 용량이 제한적이지만 시연될 수 있고, 지속기간이 짧은 것이 특징이다. 장기기억은 정보를 무제한적으로 저장할 수 있다.

- i) **감각기억(sensory memory)**: 정보가 거의 처리되지 않고 원자극과 유사한 형태로 저장됨. 정보의 저장 용량은 무제한이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0.25~2초 사이에 급속히 소멸됨
 - **영사적 기억(영상기억, iconic memory)**: 시각 정보에 관한 것. 저장고의 기억 흔적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소멸.
 - **반향적 기억(잔향기억, echoic memory)**: 소리 정보에 관한 것
- ii) **단기기억(short term memory, STM)**: 단기기억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써, **작업기억**이라고도 함. 단기감각기억의 정보가 사라지기 전에 주의집중이 이루어지면 그 정보의 일부는 단기기억에 전이. 단기기억의 정보는 반복 암송되지 않을 경우 18초 이내 사라짐
 - **저장 단계**
 - 단기기억의 저장용량은 매우 제한됨
 - **Miller(1965), 마법의 수 7 (magic number 7)**

- 능력별 개인차, 자료에 따른 기억가능성 감안하여 7±2개 항목으로 함
- 단기기억의 저장은 편(chunk)이라는 기법으로 그 용량을 확대시킴
- **편(chunk)**: 가장 크고 의미 있는 정보단위 (예> YNESO >> 5개 항목, 2개의 편(YES, NO))
- 단기기억의 용량은 '7±2의 편'
- 대치의 원리: 단기기억의 기존 항목들은 새로운 항목이 들어오면 밀려나 단기기억에서 사라짐
- iii) **장기기억(long term memory, LTM)**: 단기기억 속 정보가 **시연(rehearsal, 암송)**과정 거치면 장기기억으로 넘어가고, 그렇지 못하면 망각. 장기기억은 수 분에서 수 년 또는 평생 동안 정보가 저장됨.
 - **저장 단계**: 장기기억의 저장용량은 무제한
 - 장기기억에서의 망각이란 정보 자체의 상실이라기보다, **인출실패**에 그 원인이 있음
 - **위계망 모형**: 범주 정보가 연결에 의해 직접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다고 가정함
 - **속성비교모형**: 범주(새)와 구성원(제비)을 대표하는 명사 두 개가 갖는 속성을 비교한다고 가정함
 - ☞ 두 이론 모두 인기 있는 이론에 불과하며 더 연구되어야 할 과제임
 - **인출 단계**: 장기기억의 인출에 앞서 기억탐색이라는 내부적 과정이 선행됨
 -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으나 접근이 불가능하면 인출할 수 없다고 생각함
 - **설단현상(tip-of-the-tongue phenomenon)**: 기억하려 애쓸 때 혀끝에서 빙빙 돌지만 회상 안 되는 현상
 - 저장된 정보 찾을 때, 적절한 인출단서의 도움 필요
- 2) 단기기억 유지 전략: 시연(rehearsal)
 - ① **유지형 시연(maintenance rehearsal)**: 기억을 유지하기 위해 몇 번 암송하는 것. 단기기억 정보를 재순환하는 과정. 장기기억으로 정보전이 가능성이 매우 낮다.
 - ② **정교형 시연(elaborative rehearsal)**: 정보를 체계화, 이전의 정보와 논리적 연결체계를 형성하거나 심적 이미지를 구성하는 등의 매우 풍부한 정보 간 연결고리를 만든다. 장기기억으로 성공적으로 정보 전이를 이룸.

2. 정답 : 과정당화이론

해설 : 각 2점

- 1) **과정당화이론** : Lepper & Greene은 내재적으로 동기화되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행동이 보상이나 다른 외적 제약과 연결되면 사람들은 그 행동이 내재동기와 같은 내적 요인보다는 위협이나 뇌물과 같은 외적 요인 때문인 것으로 귀인하는 경향이 있다고 예측한다.
 - ① Kelley는 내적으로 동기화된 과제에 외적 보상이 더해지면 그 행동에 대해 **다중인과 스키마(multiple causal schema)**가 형성된다고 하였다. 다중인과 스키마가 형성되면 원인요인 중 가장 현저한 외적 요인을 그 행동의 원인으로 받아들이는 과정당화가 일어나게 되어서 내적 요인은 최소화하거나 절감하게 된다는 것. 이를 켈리는 **절감의 원리(discounting principle)**라고 함.
 - ② **레퍼와 동료들(Lepper et al., 1973)의 실험** > : 실험 결과에 대한 귀인적 해석에서는,

내재동기가 있는 상태에서 보상이 소개되면 행위자는 행동의 원인을 내적인 것에서부터 보다 현저하게 외적 요인으로 전환하여 귀인하는 절감원리로 해석.

3. 정답 : ㉠ 심의위원회 ㉡ 자체 해결(자체적으로 해결)

해설 : 각 1점

1)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자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로 제목 개정)

- ①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시행일 2020.3.1]]
-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9, 2012.1.26, 2012.3.21, 2019.8.20] [[시행일 2020.3.1]]
 - 1.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9, 2019.8.20] [[시행일 2020.3.1]]
-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19, 2019.8.20] [[시행일 2020.3.1]][[본조제목개정 2019.8.20] [[시행일 2020.3.1]]

2)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 (전체 신설)

- ①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 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 2.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 ③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8.20] [[시행일 2019.9.1]]

3)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 ②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시행일 2020.3.1]]
- ③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3.21, 2019.8.20] [[시행일 2020.3.1]]
-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신설 2019.8.20] [[시행일 2020.3.1]]
- ⑤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2019.8.20] [[시행일 2020.3.1]]
- ⑥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5.8, 2012.3.21, 2019.8.20] [[시행일 2020.3.1]]
-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태조사에 관한 예산을 지원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8, 2012.3.21, 2019.8.20] [[시행일 2020.3.1]]
- ⑧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뢰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2.3.21, 2019.8.20] [[시행일 2020.3.1]]
- ⑨ 그 밖에 전담기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3.21, 2019.8.20] [[시행일 2020.3.1]]

4. 정답 : ㉠ B: 신념(비합리적 신념) ㉡ D: 논박

해설 : 각 1점

- 1) 성격원리(ABCDE 모형)[2005, 2007, 2014 기출]
- ① **선행사건**: 개인에게 정서적 혼란을 야기하는 어떤 사건이나 행위. 우울, 자책, 분노 등 개인의 정서를 촉발하는 사건이다.
 - ② **신념**: 자신과 타인, 세상, 사건, 상황 등에 개인이 가지게 되는 태도나 믿음, 사고방식을 뜻한다. 신념체계는 합리적 신념과 비합리적 신념으로 구성.
 - i) 비합리적 신념들의 특성
 - **당위적 사고**: “반드시 ~ 해야한다.”라는 사고로 자신, 타인, 세상에 대해 강한 요구 포함. 경직됨.
 - **과장(과장화 or 재앙화)**: “~하면 끔찍하다.”, “~하면 큰일이다.”

- 자기비하 or 타인비하: 자신, 타인, 상황에 대한 극도의 비하, 파멸적 사고. “~하면(한 것을 보니), ‘나(그)는 무가치한 사람’이다.”
- 좌절 이내심 부족: 원하거나 요구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 그 상황을 견디거나 그 어떤 행복감도 느끼지 못한다.
- ③ (정서적) 결과: 선행사건 후 개인의 신념체계를 통해 사건에 대해 해석을 함으로써 유발되는 정서적 행동적 결과를 뜻한다. 비합리적 신념체계를 통해 해석을 하게 될 경우 불안, 분노, 죄책감, 수치심 등의 정서가 유발된다.
- ④ 논박: 상담자는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 신념에 대해 도전하고 그것의 합리성에 대해 검토해보도록 요구한다. 이를 통해 상담자는 내담자의 부적응적이고 자기패배적인 생각을 포기하도록 돕는다. 이는 상담의 목표가 된다.
 - i) 논박의 구성: 탐지(detecting), 반박(debating), 변별(discriminating)
 - 탐지: 내담자는 자신의 절대적 신념(~해야 한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과 자기 비하적 신념(~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등을 확인
 - 반박: 논리적, 경험적으로 질문하는 방법과 스스로 논쟁하는 방법, 그리고 비합리적 신념에 도전하는 방법으로 역기능적 신념을 논박
 - 변별: 내담자는 합리적 신념과 비합리적 신념의 선별방법 습득
- ⑤ 효과: 합리적인 신념체계를 갖게 되며 좀 더 자신을 수용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된다.

서술형

5. 정답 : (가), (나). (가)에서 잘못된 부분은 집단회기 중이나 종결과정에 비밀보장 준수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비밀유지 준수의 중요성은 회기 도중이나 종결과정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해야 한다. (나)에서 잘못된 부분은 사전동의서를 학생들에게만 받았다는 점이다.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상담으로 모두 미성년자이므로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사전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해설 : 각 1점

- 1) 집단을 떠날 자유(집단이탈)[2017, 2018년 기출]
- ① 집단지도자는 집단참여를 위한 적절한 준비작업과 사전 선별을 통해 집단원들이 집단을 조기에 그만 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이에 대한 예비 조항이 미리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 ② 지도자는 집단 초기에 집단을 중도에 그만두는 절차에 대해 모든 집단원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 ③ 집단원은 집단을 떠날 권리가 있지만,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집단지도자와 다른 이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 ④ 어떤 집단원이 집단에 남아 있도록 다른 이들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다면 집단지도가 개입해야 한다. 그리고 집단원이 떠나고 싶어 하는 이유를 고려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 ⑤ 집단 참여를 중단하고자 하는 이유를 다른 집단원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단을 떠나는 것을 너무 성급하게 허용하면, 그 집단원에게 통찰과 개인적 성장의 좋은 계기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 ⑥ 집단원 선발을 위한 개별면접과 준비교육 시간 동안 예비 집단원에게 집단의 성격을 알리는 일에 노력을 기울이며, 시간제한이 있는 폐쇄집단의 경우 집단원들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도록 전념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또한 집단에 대한 의구심이나 우려가 있다면 이를 마음에 넣어두는 대신 말로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시 강조한다.
 - ⑦ 한 집단원이 신중한 고려와 설명 없이 집단을 떠날 경우, 그 결과는 떠나는 사람뿐 아니라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남는 집단원들은 불필요한 죄책감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집단을 떠나는 것과 관련된 요인들을 논의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한다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미해결 문제를 표현하고 탐색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 ⑧ 법적 구속력하에 있는 집단원 이탈: 예를 들어, 미성년자 초범자들에 대해 법원이 형량 대신 집단상담 10회기 참여를 선고했다고 할 때, 집단상담자는 이들이 집단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은 것을 법원에 보고하게 될 것이고, 이를 재차 심의하여 형량대로 복역하도록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해줘야 함.
 - ⑨ 집단이탈 절차[2017 기출]: 집단을 떠나기로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집단상담자와 집단원들에게 알려줄 것을 강조. 중도포기에 따른 부작용 논의. 집단상담자는 조기에 집단을 떠나기로 결정한 집단원은 집단에 참석해 다른 집단원에게 이유를 밝히도록 격려. 집단이탈 요인 탐색하는 한편 집단참여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할 시간을 갖도록 권장. 해결

되지 않은 미결감정이 있을 경우, 이를 탐색하는 기회를 갖도록 도움. 떠나지 말라고 집단압력을 행사하는 집단원이 있을 경우, 즉각 개입함.

- ⑩ **집단이탈 권리 안내:** 집단상담자는 집단원 선별을 위한 면담이나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통해 잠재적 집단원들에게 중도포기 권리를 설명하고, 폐쇄집단의 경우, 끝까지 참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2) 비밀유지의 윤리적, 법률적 차원

- ① 집단상담자는 집단원들에게 비밀유지 약속을 위반할 때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려줄 윤리적, 법률적 책임이 있다.
- ② 일반적으로 집단원들이 집단 회기 중에 그들이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비밀유지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들 자신이 어떻게 통찰을 얻었고 집단에서 실제로 어떻게 상호작용을 했는지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비밀유지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은 행동이다.
- ③ 상담자는 처음부터 비밀유지의 한계를 분명히 말해주어야 하며, 의무 참여 집단의 경우 상담자에게 요구되는 모든 보고절차를 집단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비밀유지에 영향을 주지만 상담자들이 지켜야 하는 어떤 문서화 작업이나 문서 보관절차에 대해서도 언급해야 한다.
- ④ 일반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상담자에게 법률적으로 내담자가 말한 내용에 관한 비밀유지 특권이 부여된다. 비밀유지 특권(privileged communication)의 개념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전문가가 내담자가 말한 내용을 누설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 i) 내담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 혹은 기물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ii) 아동 학대나 노인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 iii) 법원으로부터 정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받을 경우
 - iv) 슈퍼비전을 받고 있는 경우
 - v) 내담자가 서면으로 허락한 경우가 예외적인 경우이다.
- ⑤ 일반적으로 집단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비밀유지는 법령에 의해 보장되거나 보호받을 수 없다. 집단지도자는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윤리적, 법률적 책무가 있지만, 다른 집단원에 대한 비밀유지 규정을 어긴 집단원에게는 법률적으로 어떤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집단에서 미성년자의 비밀유지

- ① 미성년자가 집단에 참여하기 전에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서면 승인서를 받아두는 게 좋다. 승인서에는 집단의 목적에 대한 간략한 기술과 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서 비밀유지의 중요성 및 비밀유지를 어기지 않으려는 지도자의 의도 등의 주제를 포함시킨다.
- ② 부모에게 집단의 목적을 알려주고 자녀에 대한 약간의 피드백을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자녀가 말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③ 아동과 청소년이 참여하는 집단지도자는 비밀유지가 좀 더 잘 지켜지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 미성년자들에게는 비밀유지의 한계에 대해 반드시 가르쳐야 한

다. 이런 접근을 통해 집단상담자에 대한 이들의 신뢰를 두텁게 할 수 있다.

4) 비밀유지에 관한 지침 요약

- ① 집단의 성공에는 비밀유지가 필수적이지만 모든 집단원들이 비밀유지에 관한 지침을 준수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지도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지도자는 자신의 입장에서만 비밀을 보장할 수 있을 뿐이며 집단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장할 수 없다.
- ② 집단지도자는 상담에 영향을 미칠 관련 법령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 ③ 집단지도자는 집단을 시작할 때 지도자와 집단원의 역할과 책임 및 비밀유지의 한계에 대해 설명한다.
- ④ 집단에서 완벽한 비밀유지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그 한계를 알려주어야 집단원들이 집단 회기 중 어떤 개인정보를 그리고 어느 정도 노출할지 결정할 수 있다.
- ⑤ 집단 참여자들에게 집단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말하거나 글로 쓰지 않으며, 누가 참여했는지 말하지 않겠다고 동의하는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침이다.
- ⑥ 집단지도자는 비밀유지 준수의 중요성을 집단이 전개되는 여러 단계에서 강조해야 한다. 집단원 선발을 위한 개별면접 중에 이 주제를 언급해야 하고, 첫 집단 회기에 이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집단과정 중 적절한 시점에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누군가가 비밀유지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 집단지도자는 집단원들과 함께 가능한 한 빨리 이 문제를 다룰 책임이 있다.
- ⑦ 집단상담자는 사전 동의하에 또는 사용처에 대해 집단원이 알고 있는 경우에만 집단시간을 비디오 촬영하거나 녹음한다.

6. 정답 : ㉠ 친애성 ㉡ 순종성. 민지는 4 사분면에 속한다. 근거는 타인에게 무관심하고 무뎡뎡해 적대적이며, 기분 나쁜 것을 표시하지 않고 하라는 대로 행동하므로 순종적이기 때문이다. 성훈이는 2사분면에 속한다. 근거는 타인과 잘 어울리고 학교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여 친애적이며, 지나치게 자신을 과시하여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해설 : 각 1점(사분면과 근거 모두 맞춰야 1점 제공. 한 가지만 맞추면 0.5점만 채점)

1) 대인행동의 원형모델

☞ 대인행동 원형모델은 Sullivan의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Leary와 Bakan이 제시한 주장의 토대에서 발전하였다. Wiggins와 Kiesler는 주체성(권력)과 연대성(사랑)이라는 개념을 대인행동을 기술하는 용어로 구체화하여 지배성과 친애성이라고 지칭하고 다양한 대인행동이 지배성과 친애성의 두 차원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① **지배성(dominance)의 차원** : 타인의 행동을 자신의 뜻대로 통제하려 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지배성-순종성(dominance-submission)의 연속선 상에서 대인행동을 평가
- ② **친애성(affiliation)의 차원** : 타인을 호의적으로 대하는 정도를 뜻하며 친애성-적대성(friendliness-hostility)의 연속선 상에서 평가한다.
- ③ 대인행동의 원형모델 : 지배성과 친애성의 두 차원을 세로축과 가로축으로 하는 원형구조 상에서 다양한 대인행동을 분류할 수 있다. 대인관계 원형모델은 학자에 따라 약간

<p>씩 다른 용어로 다양하게 제시</p> <p>2) 대인행동 패턴의 측정 : 대인행동 원형모델은 대인행동, 성향, 동기를 측정하는 데에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p> <p>① 원형을 4분면으로 나누는 경우 : 지배성-친애성, 지배성-적대성, 순종성-친애성, 순종성-적대성 네 조각으로 구분</p> <p>i) 지배성-친애성 4분면에 속하는 사람 : 주도적, 자기애적, 독재적인 대인행동 패턴</p> <p>ii) 지배성-적대성 4분면에 속하는 사람 : 경쟁적, 가학적, 공격적인 성격.</p> <p>iii) 순종성-친애성 4분면에 속하는 사람 : 협동적, 순응적, 의존적인 성향</p> <p>iv) 순종성-적대성 4분면에 속하는 사람 : 수동공격적, 불신적, 피학적인 대인관계 패턴</p>
--

7) 정답 : 민지는 정체감 유예에 해당한다. 민지는 전념의 측면에서 집중해서 무언가를 하지 못하는 상태이며 위기의 측면에서 진로에 대한 결정을 하지 못해 고민하고 있어 전념은 하지 않고 있으나 위기는 경험한 모습을 보인다. 지호는 정체감 혼란에 해당한다. 지호는 전념의 측면에서 어떠한 것도 하고 있지 않으며, 위기의 측면에서 위기를 경험하고 있지 않아 전념과 위기 모두 경험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해설 : 청소년의 정체감 유형: 위기와 관여의 유무에 따른 구분[2006년, 2016년 기출]

구분		위기	
		예	아니요
관여 (전념)	예	<p>정체감 성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실하고 변함없는 자아 • 직업, 종교, 성역할에 대한 신념 또는 그 밖의 것에 전념함 • 타인의 견해, 신념, 가치가 고려되었으나 스스로 많은 생각 끝에 결정에 이름 	<p>정체감 유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이나 이데올로기에 전념함 • 스스로 삶의 구성하는 과정이 결여됨: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의문을 가지지 않고 타인의 가치를 받아들임 • 자신의 정체감을 확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실함.
	아니요	<p>정체감 유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정체감 위기나 변화를 경험하고 있음 • 무엇인가에 뚜렷이 전념하지 못함 • 뚜렷한 정체감이 없음 • 정체감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함 	<p>정체감 혼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정체감 위기나 변화를 경험하고 있지 않다. • 무엇인가에 뚜렷이 전념하지 못함 • 뚜렷한 정체감이 없음 • 정체감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

8. 정답 : 해당 단계는 과도기 단계이다. 과도기 단계의 특징은 불안과 방어심리가 다양한 저항 형태로 나타난다. 구성원 간 갈등이 표출되며 이에 대해 집단리더의 중재 기술이 요구된다. 집단리더에 대한 도전이 나타날 수 있다. 집단 구성원들 간의 지배권 경쟁이 나타날 수 있다.

해설 : 각 1점

1) 과도기 단계의 특성[2005, 2009, 2013 기출]

- ① 과도기 단계는 불안과 방어심리가 다양한 저항의 형태로 표현되는 단계이다.
- ② 방어적 태도들에 다른 갈등이 표출이 되고 집단상담자에 대한 도전 역시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반면, 집단원들 사이에 자신을 통제하고 조절하려는 노력도 나타난다.
- ③ 집단상담자는 표출된 감정의 반영, 다른 집단원들의 참여 독려, 의사소통 내용에 대한 재진술, 명료화, 무감각하거나 부적절한 공격 행동 차단, 서로 공통점에 대한 연결, 갈등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개방 등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
- ④ 과도기 단계에 나타나는 집단원의 특성

불안	과도기 단계에서는 개인이나 집단 전체 내에서 불안 수준이 매우 높다. 불안은 고통이 드러나거나 진부하게 들리거나, 격렬한 감정에 압도되거나, 오해되거나, 거절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두려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집단원들이 서로를 또는 지도자를 충분히 신뢰하여 개방할 수 있을 때 불안이 줄어든다.
방어	집단원들은 종종 두려움과 싸우고 불편한 상황을 다루기 위해 오랫동안 사용해왔던 방어기제에 의지한다. 저항은 정상적 과정이며 집단 내에서 생산적인 탐색을 유도할 중요한 도구. 더불어 방어적 행동은 집단 밖에서 한 집단원의 대인관계 스타일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저항을 친근함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짓기도 하는데, 친밀이란 상처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 친밀함과 관련된 두려움을 다룸으로써 집단원들은 다른 사람과 거리 두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들을 자각하게 됨. 만약 집단상담자가 방어하는 집단원의 문제에 대해 진술하고 집단원과 자신이 어떤 영향을 받는 지 말해줌으로써 개입을 해도 여전히 방어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경우, 집단상담자는 자신의 자질 부족 때문에 방어가 형성되는 것인지 집단원 두려움 때문인지 평가작업을 해야 한다.
지배권에 대한 경쟁	집단에서 지배권을 유지하는 문제는 책임의 분배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토론 등이 포함된다. 집단원들의 주요한 불안은 책임을 너무 많이 지거나 너무 적게 지는 것과 관련된다. 이러한 주제를 드러내서 지금-여기에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며 이를 무시할 때 숨겨진 주제가 된다.
갈등	갈등을 문제로 만드는 것은 갈등을 회피하는 태도이다. 갈등과 불신의 원인이 되는 집단의 다양성의 영역에는 나이, 성, 언어, 성적 지향, 사회 경제적 지위, 장애, 인종, 민족, 학식 등이 있다. 문화적 배경과 상관없이 그들의 원가족에서 습득한 패턴 때문에 갈등을 다루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지도자의 의무는 감정들이 집단의 진행을 방해할 정도로 사람들을 마비시키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집단원들이 그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더 큰 자기인식과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 있는 타인을 이해하도록 촉진하는 것이다. 탐색되지 않은 갈등은 방어적인 행동, 직접적이지 않음, 신뢰의 전반적인 부족 등으로 나타난다.
직면	효과적인 직면은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인식과 느낌, 그들에 의해 자신이 받은 영향을 표현하는 것. 즉 집단원들은 다른 집단원의 고투에 대해 비난하는 대신에 어려움이나 문제가 자신에게도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상담자에 대한 도전	지도자들은 과도기 단계에서 개인적인 측면과 전문적인 측면 모두에 대해 훨씬 많은 직면을 받는다. 이때, 지도자는 방어적이지 않은 태도로 집단원들이 말한 내용을 살펴보고, 그럼으로써 도전과 공격을 구별할 수 있다. 지도자가 집단원에게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집단원들이 나중에 상담자에게 신뢰를 가지고 다가갈 것인가 아닌가에 영향을 미친다.

9. 정답 : ㉠ 내담자 기대에 대해 안내하기 ㉡ 내담자 관심을 출발점으로 확인하기 ㉢ 계획되지 않은 일이 현재 기반이 된 내담자 성공 경험 활용하기 ㉣ 잠재적인 기회를 알아차릴 수 있는 내담자의 감수성 키우기

해설 : 각 1점

1) 상담과정

㉠ 1단계: 내담자 기대에 대해 안내하기

i) 내용: 계획되지 않았던 사건이 정상적이고 필요한 요소가 되는 상담과정에 대해 내담자를 준비시킨다.

ii) 실제

- “미래를 계획하면서 경험하는 불안은 정상적인 것이고, 오히려 신나는 모험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 “상담의 목표는 00씨를 보다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삶을 만들어 내도록 돕는 것입니다.”
- “진로란, 평생 동안의 학습과정으로 계획되지 않았던 수많은 사건을 만나 그 때마다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아무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진로는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일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 2단계: 내담자의 관심을 출발점으로 확인하기

i) 내용: 내담자를 보다 만족스럽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한다.

ii) 실제

- 적극적 경청/내담자의 상황과 감정 이해하고 있음을 확신시킴
- “힘이 넘친다고 느끼는 활동들은 뭐가 있지요?”
- “이런 힘이 넘치는 활동들을 어떻게 발견하게 되었나요?”

㉢ 3단계: 계획되지 않은 일이 현재의 기반이 된 내담자의 성공 경험 활용하기

i) 내용: 과거의 성공이 현재의 행동에 교훈을 준단느 것을 내담자가 알아차릴 수 있게 함으로써 주인의식을 갖게 한다.

ii) 실제

- “그 일이 00씨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나요?”
- “그 기회를 어떻게 알아차렸나요?”
- “그 일이 일어난 다음,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어떻게 했나요?”
- “새롭게 배워야 했던 기술은 무엇이었나요?”

㉣ 4단계: 잠재적인 기회를 알아차릴 수 있는 내담자의 감수성 키우기

i) 내용: 예기치 않았던 사건을 기회로 활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돕는다.

ii) 실제

- “00씨에게 어떤 기회가 왔으면 하는지 얘기해 보세요.”
- “그 기회가 일어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볼 수 있을까요?”
- “그렇게 행동하면 00씨의 삶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00씨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⑤ 5단계: 장애요인 극복하기

i) 내용: 건설적인 행동을 방해하는 역기능적 신념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내담자를 돕는다.

ii) 실제

- “00씨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00씨가 원하는 것에 다가가기 위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이 첫 시도를 못하도록 막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만일 00씨가 적절한 행동을 취한다면 00씨의 인생이 얼마나 더 만족스러워질까요?”
- “우리가 다음번 만나기 전까지 무엇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을까요?”

10. 정답 : (가) 되도록 빨리 그리도록 하세요라고 말한 것은 잘못되었다. 빨리 그리든 천천히 그리든 상관없습니다라고 반응해야 한다. / 진주가 두 번째로 종이를 가로로 돌려놓았을 때 다시 세로로 돌려놓고 가로로 놓고 그리면 안됩니다라고 말한 것은 잘못되었다. 한 번 이상 고쳐주지 않는다. (나) 이 카드에 어떠한 형태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 것은 잘못되었다. “네, 잉크로 만든 카드예요. 그것이 무엇처럼 보이는지 말해주길 바랍니다.”라고 답변해야 한다. / 두 번째 카드에서 연상을 실패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개 이상 대답을 합니다. 떠올려 보세요.”라고 말한 것은 잘못되었다. 첫 번째 카드나 두 번째 카드에서 연상을 실패하면 검사를 중지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검토한 뒤 계속 저항을 하면 검사를 중단해야 한다.

해설 : 각 1점

1) 실시지침

- ① 자극카드가 보이지 않게 차례로 얹어두고 A도형 부터 차례로 도형 8까지 제시한다.
- ② 모사용지는 여러 장을 준비해 피검자가 원하면 더 사용할 수 있다.
- ③ 모사용지는 세로로 제시한다.
- ④ 모사 시 보조도구 사용은 금한다.
- ⑤ “여기에 몇 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당신이 보이는 대로 이것을 그리세요.”라고 말을 하고, 제시 내용에 외의 질문에는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라고 반응한다.
- ⑥ 피검자가 모르게 전체 반응시간을 측정한다.

2) 일반적인 실시 방법

- ① 이하 제시되는 6가지 방법들은 필요에 따라서 임의로 채택되어 쓰이게 된다.
- ② 일반적으로 심리적인 문제를 가진 피검자에게는 ‘모사’ 단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변용묘사 단계, 연상 단계를 조합하여 사용한다. 변용 묘사 단계(정교화 단계)와 연상 단계에서 피검자의 성격적 특성과 역동적인 면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③ 기질적인 손상이 의심되는 피검자들에게는 순간노출 단계를 먼저 실시한 뒤 모사 단계, 회상 단계의 순으로 실시한다.
- ④ 모사단계(copy phase): 피검자에게 모사할 용지, 연필, 지우개를 주고 9매의 BGT 카드를 책상 위에 얹어둔 뒤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카드를 가리키면서) 지금부터 이 카드를 한 번에 한 장씩 보여드리겠습니다. 각 카드에는 간단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고 종이에 그대로 따라서 그리십시오. 빨리 그리든 천천히 그리든 상관없습니다. 이 검사는 미술능력의 검사는 아니지만 될 수 있는대로 정확하게 그리십시오.”

- ⑤ 종이사용은 자유롭게 놓아둠 → 1장을 사용하든 여러 장을 사용하든 용지의 어떤 부분을 사용하든 전체를 사용하든 전적으로 피검자가 선택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용지는 이정도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보여줌 → 장 수를 말하지 말고 손에 쥐고 있거나 놓아둔 카드더미를 보여 주기만 해야 한다.
- ⑦ 종이는 세로로 제시. → 세로로 제시한 종이를 가로로 놓고 그리려 한다면 한번은 세로로 놓아주고 “이렇게 놓고 그려라”고 하나 그 이상은 고쳐 주지 않는다.
- ⑧ 연필과 지우개 사용에 관한 것 → 연필심은 중간 정도의 부드러운 것으로 택하여 필압이 어떤지를 잘 관찰하여 나중에 검사를 해석할 때 자료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지우개를 사용하는 것은 피검자의 자유이며 이에 대한 것도 관찰하여 기록해 둬므로서 검사 해석에 보조적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 ⑨ 검사 진행시 피검자의 검사 행동은 상당히 중요한 정보이므로 피검자의 검사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잘 기록해 놓고 중간 중간 피검자의 질문이나 말도 기록해 놓아 검사 해석시에 적용한다.

3) 지시(연상단계)

- ① 지시가 달라짐에 따라 반응의 수는 물론 반응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반드시 표준방식에 따라야 한다.
- ② 첫 번째 카드를 제시하면서 “이것이 무엇으로 보입니까?” 또는 “이것이 무엇입니까?”라고만 한다. 자유연상단계(연상단계).
- ③ 만약 피검자가 이러한 지시에 대해 “그건 잉크블롯처럼 보여요.”라고 응답한다면 검사자는 “그래요. 이건 잉크로 만든 카드예요. 그것이 무엇처럼 보이는지를 말해주길 바랍니다.”라고 지시한다.
- ④ 피검자가 I 번 카드에서 단지 한 개의 반응만을 하는 경우 검사자는 카드 I에 한하여 “좀 더 충분하게 보도록 합시다. 내 생각에는 당신이 좀 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라고 격려한다.
- ⑤ 만약 피검자가 I 번 카드에서 2개, 3개 반응을 하고 나서 몇 개나 반응을 해야하는지 물을 경우 “그건 당신에게 달려있습니다.”라고 응답한다.
- ⑥ 피검자가 I 번 카드나 II 번 카드에서 아무 것도 볼 수 없다고 거절한다면 적절한 관계형성에 실패했거나 피검자가 검사 시행 방법을 이해하지 못한 경우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검사를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일단 검사를 중지하고 피검자와 함께 무엇이 문제인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계속 저항하면 검사 중단.
- ⑦ 피검자가 몇 개 카드에 적절히 반응하다가 반응 거부하는 경우: 충분한 격려 후 다시 반응하도록 도와준다.

4) 피검자의 질문에 응답하기

- ① 피검자의 질문에 대한 원칙은 가능한 비지시적으로 짧게 응답.

- ② 돌려봐도 되느냐고 묻는다면 “편한대로 하십시오.”, “그건 당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로 응답.
- ③ 다른 사람들은 몇 개나 반응을 하느냐고 묻는다면 “대부분 한 개 이상의 대답을 합니다.”로 응답.
- ④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보느냐고 묻는다면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로 응답.
- ⑤ 이 검사의 목적이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피검자가 검사를 받는 목적이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응답. 상담 현장이라면 “당신의 문제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한 방법입니다.”로 응답.

11. 정답 : (가)의 송호는 자율적 도덕단계이다. 근거는 행위 자체의 객관적 결과보다 의도에 더 높은 비중을 두어 진수가 선한 의도로 친구와 다투었기 때문에 벌을 똑같이 주어진 안 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의 수호는 고정관념과 승인지향(승인지향적 수준) 수준이다. 근거는 수호는 남을 도와주는 것이 착한 아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며 타인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 친구들을 도와주는 행동을 하는 승인지향적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해설 : 각 1점.

1) Eisenberg 친사회적 도덕추론의 수준(1983)		
수준	연령	특징
쾌락주의 지향 (쾌락적 수준)	학령전기 · 초등 저학년 아동	자기중심적, 도움 주는 것은 자신에게 이익 될 때만 일어남. 예> 놀러가야 되니까 못 도와줘.
타인의 욕구 지향 (욕구지향적 수준)	학령전기 일부 · 초등학교 아동	타인의 욕구에 근거한 도움 나타나지만, 동정이나 죄책감 없다. 예> 친구가 원하니까 도와줘야지.
고정관념과 승인지향 (승인지향적 수준)	초등학교 아동 · 일부 중학생	남들의 인정에 대한 관심과 선악에 대한 고정관념적 이미지의 영향을 받는다. 예> 도와주면 엄마가 날 꼭 껴안아 줄 거야.
감정이입 지향 (공감적 수준)	초등 고학년 일 부 · 중학생	동정, 죄책감, 도와주었을 때 기분 좋음 등이 중요. 때때로 의무와 가치에 대해 막연하게 추론. 예>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도와주면 내가 기분이 좋아질 거야.
내면화된 가치 지향 (내면화 수준)	극히 일부 중고생	친사회적 행동기준을 내면화된 가치와 기준, 신념, 책임감에 둬. 이러한 원리를 위반했을 때 자존심이 저하될 수 있다. 예> 그 상황에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사람이 아닐 거야.

2) 피아제 이론		
단계	시기	내용
전도덕 단계	유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칙 의식하고 있지 않거나 관심 없다. • 이기려는 의도 갖고 체계적으로 노는 대신 나름대로의 규칙 형성. • 게임에서 중요한 점은 서로 번갈아 하고 재미있게 노는 것.
타율적 도덕단계	6~10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칙을 권위적 존재에 의해 만들어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 • 옳고 그름이 있고 규칙 따르는 것이 항상 옳다고 믿음. • 나쁜 행동의 의도가 아닌 객관적 결과에 의해 판단. • 금지된 행동의 특성과 관계없이 벌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 • 나쁜 행동은 반드시 벌을 받으며 정의는 영원하다는 내재적 정의 믿음.
자율적 도덕단계	10~11세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규칙은 사람들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변경 가능함을 인식. • 인간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때로 규칙 위반할 수 있다. • 행위 자체의 객관적 결과가 아닌 의도에 더 비중을 둔 판단. • 잘못된 결과에 맞추어 벌을 주는 것을 선호. • 권선징악과 같은 내재적 정의를 더 이상 믿지 않음.

12. 정답 : ㉠ 대처질문, 목적은 첫째, 어떤 상황에서든 내담자가 나빠지지 않게 하는 대처 방안이 있음을 깨닫게 한다. 나영이는 성적이 좋지 않게 나와도 포기하지 않고 암기과목을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유지하는 대처 기술이 있다. 둘째, 내담자의 신념체계와 무력감에 대항하게 하여 일종의 성공경험을 하게 한다. 나영이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된다는 무력감에서 자신이 그동안 노력했기 때문에 성적이 평균 점수로 유지되어 왔음을 깨달았다. 셋째, 내담자의 자신감과 능력을 회복시켜 긍정적 자아상을 갖게 한다. 나영이는 자신이 인내심과 성실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해설 : 각 1점

<p>대처질문 [2012, 2015 특시 기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 대상: 자신의 미래를 매우 절망적으로 보아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하는 내담자에게 주로 사용. • 방법: 내담자가 어려움과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생존해 왔는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유지해 올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질문하는 동시에 생존능력을 인정하고 간접적으로 칭찬하는 것. • 목적: 이 질문의 의도는 내담자 자신이 대처 방안의 기술을 갖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 대처 방안에 대한 질문을 통해 치료자는 내담자의 신념 체계와 무력감에 대항하는 동시에 내담자에게 일종의 성공을 느끼게 할 수 있다. 내담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견디어 내고 더 나빠지지 않은 것을 강조.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 대처해 온 방법을 발견. • 효과: 내담자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생존 능력, 대처능력, 의지력과 책임감 등의 강점을 발견하여 지적하고 인정하며 새로운 가치를 부여. 내담자가 자신감과 능력을 회복하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도록 돕는다.
---	--

질문

어머님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지금까지 견딜 수 있었지요?

어떻게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을 수 있었나요?

계속 술을 마시는 것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2020학년도 대비 정혜영 전문상담 모의고사

전문상담 B형 해답지

기입형

1. 정답 : ㉠ 호소기법(의지의 암시훈련) ㉡ 태도변형(수정) 기법

해설 : 각 1점

<p>호소기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담자의 에너지 수준이 너무 약해서 내담자와 상담계획을 세울 수 없을 때 ‘의지의 암시 훈련’과 ‘의지의 자율 훈련’이 실시된다. • 의지의 암시 훈련: “나는 나의 충동이나 감정의 무력한 희생자가 아니다. 나는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나의 의지를 강화하고 나에게 의미 있는 목표를 향하거나 나 자신에 대해...(중략) • 의지의 자율 훈련: 준비단계(의지에 집중)-의지형성 단계(신체감각 조절)-종결단계
<p>태도변형 (수정) 기법 (modification of attitud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제 : 과거 자체나 과거의 사건을 변형시킬 수는 없지만 과거에 대한 태도는 수정 가능하다. -대안은 여러 가지다. -행동양식은 바꿀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의미는 발견 가능하다. -삶의 어떤 경우에도 의미는 있다. -모든 상황에 긍정적인 면이 있다. -과오, 실책, 질병, 돌이킬 수 없는 희망의 경우에도 기회는 있다. • 효과 : 과거를 새롭게 해석하고, 현재 상황에 대해 긍정적 측면을 발견하게 한다(바꿀 수 없는 무의미한 상황에서 새롭고 의미가 있는 태도를 찾아내게 한다). “사회의 무기력한 희생자”라는 패배의식을 극복하고 자제력을 갖게하고 건전한 태도를 갖게 한다.(건설치 못한 태도를 바꾸게 한다.)

2. 정답 : (가) 계획하기 (나) 평가하기(바람, 행동, 계획에 대한 자기평가하기)

해설 : 각 1점

<p>W(want): 욕구, 바람, 지각의 탐색 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동변화 과정의 시작. • 내담자의 질적 세계(좋은 세계) 탐색 위해 주변 사람이나 자신에게 원하는 것을 알아보고, 심리적 욕구 중 충족된 것과 충족되지 않은 것을 구분해 준다. •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위해 원하는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할지, 욕구에 관하여 무엇을 원하는지, 피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되고 싶은지, 자신의 통제·자신·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지 묻는다. • 탐색 질문 : “무엇을 원하는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
---	--

	<p>람들이 당신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어떤 시각으로 사물과 환경을 바라보는가?”, “상담자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문제 해결을 위해 기꺼이 노력하겠는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행동변화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가?”</p>
<p>D(Doing): 전행동(全行動)과 행동방향 탐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담자들에게 그들의 전반적인 방향에 관하여 묻는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는다. • 탐색 질문 :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해보았는가(시도 해보았는가)?”
<p>E(Evaluation) : 바람, 행동, 계획에 대한 자기평가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료의 핵심은 “현재 행동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는가? 현재 행동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고 있는가?” 등의 숙련된 질문 통해 내담자가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도록 돕는 것. • 내담자가 좋은 세계와 연관해 자기 행동을 평가하여 효과적 선택 하도록 돕기 위해 행동 결과를 직면시켜야 한다. • 전행동의 활동하기, 생각하기, 느끼기, 신체반응하기 등의 평가과정은 내담자의 책임 능력 내에서 이루어진다. • 탐색 질문 : “현재 행하는 것이 당신에게 도움이 됩니까?”, “현재 행하는 것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데 도움이 됩니까?”, “당신이 원하는 것은 현실적입니까? 실현 가능한 것입니까?”, “그런 식으로 보는 것이 당신에게 도움이 됩니까?”, “당신이 수립한 계획은 당신의 욕구나 바람 충족에 도움이 됩니까?”
<p>P (Plan): 계획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담자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바람과 욕구를 더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도록 계획을 수립,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생활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된다. • 효과적인 계획의 조건 : 다섯 가지 욕구의 충족, 간단, 달성가능, 측정가능, 즉각적 개입, 계획자의 통제, 위탁됨, 계속적으로 실천하는 것. • 탐색 질문 : “이 계획을 기꺼이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당신이 실행하기로 약속한 것을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실행하겠다고 한 대로 여기 용지에 서명해 주시겠습니까?”, “마음이 변하거나 계획대로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Wubbolding이 제시한 효율적인 계획을 세울 때 고려할 사항 (SAMIC3/P) : 단순(simple), 현실적(attainable), 구체적(measurable), 신속성(immediate), 독립적(controlled), 일관성(consistent), 확고한 의지(committed) / 계획자의 책임(planner)

서술형

3. 정답 : 첫째, 대리경험이다. 영호는 자신처럼 슬럼프가 왔다가 연습을 해서 극복을 한 민수를 보고 자신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둘째는 성취경험이다. 영호는 중학교 내내 실력있는 공격수였다. 셋째는 언어적 설득이다. 김교사가 영호에게 “실력이 없어질 수 없다. 변함없는 최고의 공격수이다.”라고 말해준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넷째는 정서적 각성이다. 무기력감과 우울감이 사라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이 밝아졌다.

해설 : 각 1점

- 1) 자기효능감(self-efficacy)[2007, 2009, 2010, 2012, 2015특시, 2019년 기출]
- ① 바람직한 효과를 산출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 즉, 개인이 처한 환경에서 스스로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고, 또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
 - ② 자기효능감은 수행과 별도로 발달하며, 한 개인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근거가 됨.
 - ③ 자기효능감 VS 자아존중감 : 개인 능력에 대한 판단 VS 자기가치에 대한 판단.
 - ④ 자기효능감 VS 로터의 통제소재 : 특정 행동에 대한 예측 VS 행동이 결과에 영향을 줄 것인가 여부.
 - ⑤ 자기효능감의 원천[2010, 2012 기출]
 - i) 성취경험: 성공, 실패에 대한 과거 경험.
 - ii) 대리경험: 타인의 성공, 실패를 목격하는 것.
 - iii) 언어적 설득: 타인으로부터 어떤 과제에 대해 잘 해낼 수 있는지 여부를 듣는 것.
 - iv) 정서적 각성: 주어진 수행상황에서의 개인의 정서적 각성 정도와 질

4. 정답 : (가) 소라에게 작용한 치료적 요인은 대인관계 학습이다. 치료적 효과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한다, 타인과의 관계에 역기능을 일으키는 요인을 자각하고 통찰한다, 자신의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을 수용하고 통합한다. (나) 무영이에게 작용한 치료적 요인은 모방행동이다. 타인으로부터 긍정적 행동을 배우고 습득한다, 바람직한 새로운 행동에 대해 모험시도를 하게 된다.

해설 : 각 1점

- 1) 대인관계 학습
- ① 개념: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을 하는 것.
 - ② 치료적 효과: 집단원들이 방어를 벗어날 수 있도록 집단이 운영되면, 그들은 가장 생생하게 자신의 문제를 집단에 내보이게 되고 집단상담자는 이 집단 내에서 나타나는 부적응적 대인관계 행동을 알아, 이를 치료적으로 해결한다. 즉 타인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 타인과 역기능을 일으키는 자신의 특성을 자각하고 통찰하여 교정적 정서체험을 하고 전이에 대한 해결을 하며 통찰을 하게 된다.
- 2) 모방행동
- ① 개념: 다른 사람들의 긍정적 행동의 모방. 즉 집단원이나 집단상담자의 행동이나 작업을 관찰함으로써 도움을 얻는 것.

② 치료적 효과: 새로운 행동을 실험하는 모험시도의 모습, 긍정적 행동의 습득, 자기발견을 향해 나아감.

5. 정답 : 사회인지진로이론의 목표는 내담자가 낮은 자기효능감이나 잘못된 결과기대 때문에 제외된 진로대안까지 확장하여 진로대안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담자의 직업 성격과 일치하는 진로선택을 하도록 돕는 것이다. ㉠은 제외된 진로대안의 확인이다. ㉡은 진로 장벽 지각에 대한 분석이다. ㉢은 자기효능감 변화 촉진이다.

해설 : 각 1점

- 1) 목표[2014년 기출]
- ① 가장 중요한 목표: 내담자의 직업 성격의 중요한 측면과 일치하는 진로선택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 기존 상담과 차이점은 내담자가 낮은 자기효능감이나 잘못된 결과기대 때문에 결과 대상에서 제외된 진로대안들까지 확장하여 내담자와 잘 어울릴 수 있는 가능성들을 탐색해 본다는 점이다.
- ② 이러한 상담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제외된 진로 대안의 확인, 진로장벽 지각에 대한 분석, 자기 효능감 변화 촉진 등의 주요 과정을 거친다.

< 각 과정의 구체적인 내용 >

제외된 진로 대안의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효능감과 확인된 능력 사이의 차이와 결과기대와 직업정보 사이의 차이를 평가한다. • 방법1) 제외된 진로 대안을 확인하기 위해 직업흥미검사, 직업가치관검사, 적성검사 등의 표준화검사를 실시하고, 각 검사 결과에서 추천하는 직업들을 비교해 본 다음, 직업흥미검사에서는 추천되지 않았지만 다른 검사에서는 추천된 직업들을 제외된 진로대안으로 파악할 수 있다. • 방법2) 변형된 직업카드 분류법: 내담자에게 직업 이름이 적혀 있는 카드 묶음을 주고 '선택하고 싶은 직업', '선택하지 않을 직업', '잘 모르는 직업' 세 가지로 분류하라고 한다. 다만 전통적인 직업카드 분류법의 과정과 달리, '선택하지 않을 직업'과 '잘 모르는 직업'에 초점을 두고 이들 가운데 만일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선택할 직업(자기효능감), 성공을 확신할 수 있다면 선택할 직업(결과기대), 어떤 경우라도 선택하지 않을 직업(흥미없는 직업)으로 분류하여 탐색한다.
진로 장벽 지각에 대한 분석 [2014 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장벽을 확인하고, 진로장벽에 대한 지각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 평가하고, 이러한 장벽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진로 대안에 대한 의사결정 대조표를 작성할 것을 제안: 부정적인 예상결과에 초점을 두는데, 바로 그 내용이 내담자가 지각하고 있는 진로장벽의 내용이 될 수 있다.
자기효능감 변화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성공경험을 하게 하거나, 과거의 경험을 재해석하거나, 재귀인이 도움이 되는 구체적 자료를 수집하거나 제시한다. • 성공한 것을 내담자 스스로 성공 경험으로 지각하는 게 중요하다. • 상담자는 내담자가 발달적으로 적합한 수행을 해낸 것에 대해 다시 인식하고 얼마나 잘했는가가 아니라 발달적 진전을 이뤘다는 것에 스스로 강화할

	<p>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공의 원인을 과제가 쉬워서 또는 노력을 했기 때문이라고 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에 제대로 귀인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

6. 정답 : ㉠에서 알 수 있는 진수의 진로포부 발달단계는 사회적 가치 지향성이다. 해당 단계에서 진로대안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요소는 사회적 지위(능력)이다. 진로대안을 포기하는 타협과정은 흥미와 사회적 지위, 성역할 순서로 진로대안을 포기해간다. 진수가 성유형을 유지하기 위해 자동차정비사나 포크레인 기사를 선택한 이유는 진수의 진로대안이 모두 사회적 위치 밖에 존재하여 타협이 많기 때문에 흥미와 사회적 지위를 모두 포기해야했기 때문이다.

해설 : 각 1점


	<p>1) 제한: 자기개념과 일치하지 않는 직업적 대안들을 제외하는 과정. 직업선택 기준에 있어서 사회적 계급 측면을 근거로 하여 개인이 수용하기 어려운 직업적 대안들을 줄여나가는 과정이다. 이러한 제한의 기준은 사회적 수용성에서 시작하여 보다 추상적인 적합성으로 발달한다.</p> <p>① 제한과정</p> <p>i) 수용 가능한 진로대안의 영역을 줄여나가는 과정.</p> <p>ii) 아동의 추상적 사고능력의 발달로 4단계 제한과정 거침.</p> <p>iii) 각 단계를 거치는 연령보다는 각 단계를 거쳐 나가는 순서가 발달적으로 더 중요.</p> <p>2) 타협: 가장 선호되는 직업 대안을 포기하고 덜 적합하지만 보다 접근이 용이한 직업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협상의 주요 요소는 제한된 탐색과 지식, 더 큰 투자, 더 큰 접근가능성, 성역할, 사회적 지위, 흥미 중 자기개념에 덜 중요한 차원부터 포기해가기가 있다.</p> <p>① 타협과정</p> <p>i) 자기가 원하는 흥미 영역의 직업을 선택한다고 해도 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이 어려운 경우 어떤 부분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과정.</p> <p>ii) 타협: 흥미 > 사회적 지위 > 성역할 순서로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대안을 포기해나간다</p> <p>② 타협예측[2011 기출]</p> <p>i) 타협이 상대적으로 적을 때(즉 모든 대안들이 사회적 위치 내에 있을 때): 자신의 흥미를 최대한 살리는 일을 최우선 순위.</p> <p>ii) 타협이 중간정도일 때(즉 대안들의 일부가 사회적 위치 밖에 있을 때): 명성, 성 유형에 대한 수용능력을 포기하기 전에 직업에 대한 흥미를 포기.</p> <p>iii) 타협이 많을 때(즉, 모든 대안들이 사회적 위치 밖에 존재할 때): 수용할만한 성유형을 유지하기 위해 흥미, 명성 모두 포기.</p> <p>3) 직업과 관련된 개인발달의 단계[2008, 2011, 2015 기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15%;">사회적 가치</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계층에 대한 개념이 생기면서 상황 속에서의 자아를 인식하게 되고, 일의 수준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킨다. </td> </tr> </table>	사회적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계층에 대한 개념이 생기면서 상황 속에서의 자아를 인식하게 되고, 일의 수준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킨다.
사회적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계층에 대한 개념이 생기면서 상황 속에서의 자아를 인식하게 되고, 일의 수준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킨다. 		

지향성 (9~13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들은 어떤 사회적 규칙에 의해 나눠졌다는 것을 알게 되며, 특히 능력이 그 분배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로 작용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에 자신의 상대적 능력에 대해 판단하기 시작하고, 이를 사회 속에서 상대적 서열과 관련짓는다. • 높은 지위의 직업과 낮은 지위의 직업에 대한 개념이 생기면서 존경을 받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등의 직업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기준으로 적합한 직업군을 줄여나간다. • 직업에 대한 생각: 사회적 지위가 너무 낮아서 받아들일 수 없는 지위 하한선과 그 직업을 갖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지위 상한선이 형성
내적 고유한 자아 지향성 (14세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성적인 사고를 통하여 자아인식이 발달되며, 타인에 대한 개념이 생겨난다. 자아성찰과 사회계층의 맥락에서 직업적 포부가 더욱 발달하게 된다. •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떻게 자랐는지, 내 주변 사람들의 기대는 어떠한지 등의 고민을 거쳐 자기정체감을 확립하게 되고 지금까지 생각했던 성역할과 사회적 지위도 만족시키면서 자기정체감까지 만족시키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다. (자신의 가치, 능력, 성격 등의 기준으로 직업 선택) • 1~3단계가 진로대안을 제외시키는 과정이라면, 이 단계에서는 가능한 대안들 가운데 어떤 대안이 가장 좋은지 선택하는 것에 초점. • 이런 내적 자아 확립 단계에서는 내적 자아의 고유성 중 가장 대표하는 것이 흥미여서 흥미별로 직업을 분류하고 자신의 흥미에 맞는 직업세계를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 • 직업에 대한 생각: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성역할과 사회적 지위도 만족시키면서 자기 정체감까지 만족시키는 직업을 선택.

7. 정답 : 누나는 초이성형이다. 초이성형의 자원은 지식이다. 초이성형의 내적경험은 나는 상처받기 쉽고 고립된 느낌이다, 어떤 감정도 표현할 수 없다이다. 아버지는 산만형이다. 산만형의 자원은 즐거움과 자발성, 창의성이다. 산만형의 내적경험은 아무도 상관치 않는다, 거긴 내게 적절한 곳이 아니다, 균형이 없다, 끼어들어 주목받고자 한다이다.


해설 : 각 1점

1) 초이성형		
① 정의 : 자신과 타인 모두를 무시하고 상황만 중시하는 유형		
② 특징 : 지나치게 이성적, 자료와 논리 수준에서 기능. 비인간적이며 객관적인 특징을 가지며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갈등을 해결하고자 자료나 연구 결과를 인용한다. 이들은 지성인으로 오해가 되곤 하나, 실은 쉽게 상처받고 소외감을 느끼며 감정에 취약해서 감정을 상황으로 초점을 바꾸려는 것이다.		
단어 : 극단적인 객관성	정서 : 완고, 냉담	행동 : 권위적
규칙과 '옳은' 것에 관한 자료 사용, 추상적 단어 사용, 정확한 논리적 설명	"사람은 어떤 희생이 있어도 냉정하고 조용하고 침착해야 한다"	경직, 원칙론적 행위 행동을 합리화, 조작적, 의도적, 강제적

“사람은 지적이어야 한다.”	경직된 굳은 자세, 고자세	
내적 경험	심리적 영향	신체적 영향
‘나는 상처받기 쉽고 고립된 느낌이다.’ ‘어떤 감정도 표현할 수 없다’	강박적-강제적 반사회적 사회적으로 위축, 과도한 긴장	건조성 질병 점액, 임파조직에 질병 발생 암, 심장마비 등의 통증
자기와 다른 사람을 무시  자원 : 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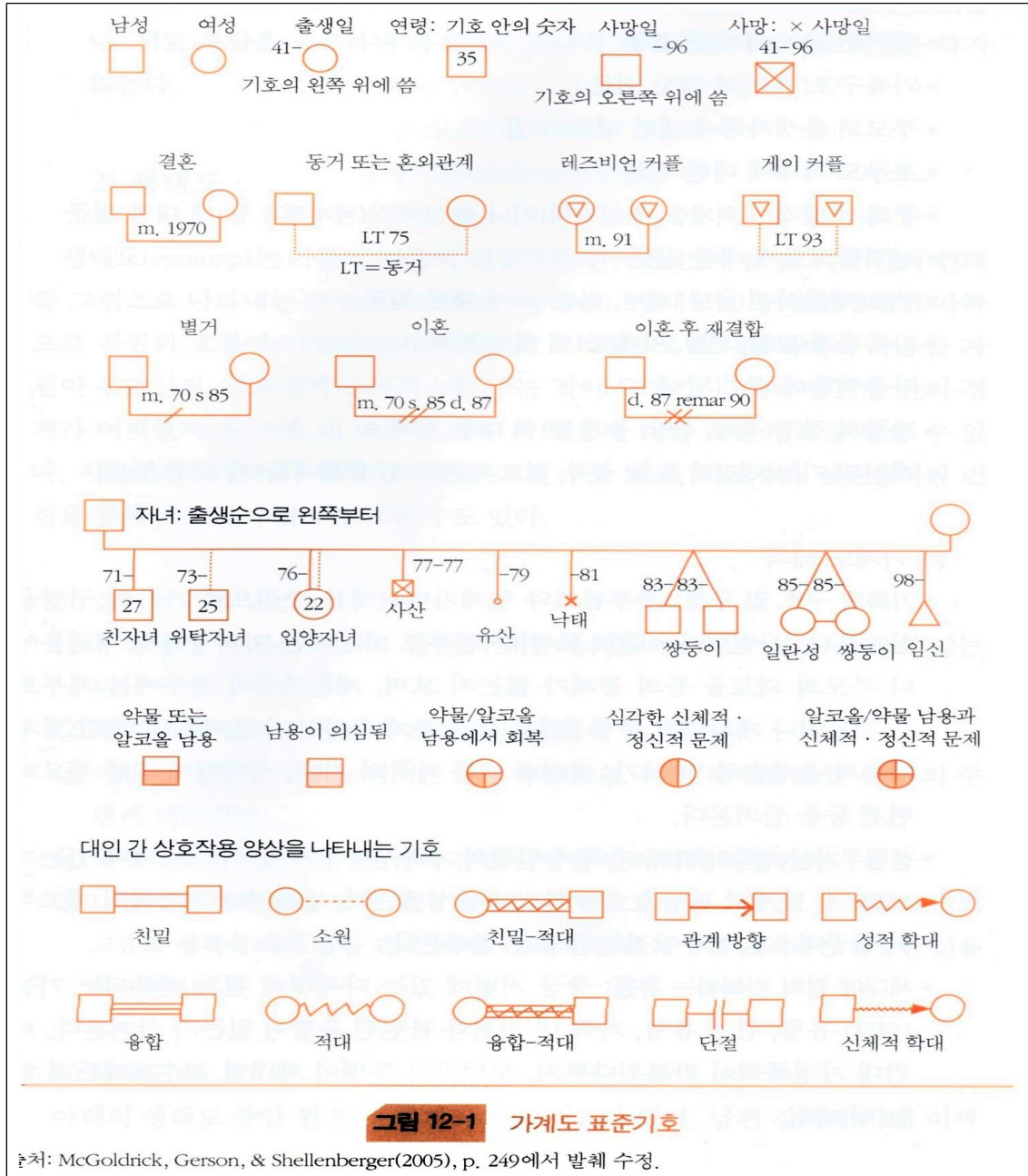
2) 산만형

- ① 정의 : 자신, 타인, 상황을 모두 무시하는 유형으로 접촉하기가 가장 어렵다.
- ② 특징 : 재밌거나 익살스럽게 보임.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매우 산만한 행동. 매우 혼돈된 심리 상태. 산만형과 초이성은 대조적이다. 이들은 스트레스를 주는 주제로부터 관심을 돌릴 수 있는 한 생존할 수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쉬지 않고 움직이며 의논 주제로부터 관심을 분산시키고자 한다. 이들 내면은 현재가 자신이 머물기에 부적절하다고 여기는 극단적인 심리적 불균형 상태에 있다.

단어 : 관계없는 단어 사용	정서 : 혼돈스러움	행동 : 산만함
뜻이 통하지 않는다 이야기에 요점이 없다 계속해서 “그냥 놔둬.”라고 말한다.	“나는 실제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움직인다. 비스듬히 앉는다.	부적절하게 조정한다 지나치게 활동적이다 끼어들어 중단시킨다
내적 경험	심리적 영향	신체적 영향
‘아무도 상관치 않는다.’ ‘거긴 내게 적절한 곳이 아니다.’ 균형이 없다 끼어들어 주목받고자 한다.	혼돈됨 부적절한 정신질환	중추신경계 장애 위장장애, 메스꺼움 당뇨병, 편두통, 변비
자기, 타인, 상황 모두를 무시  자원 : 즐거움, 자발성, 창의성		

8. 정답 : 성훈이 외할아버지와 성훈이 외할머니는 90년에 이혼한 것이 아니라 별거한 것이다. 성훈이 어머니와 성훈이는 융합-적대 관계가 아니라 친밀-적대 관계이다

해설 : 각 1점



9. 정답 : 형우의 문제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진단기준은 다른 사람의 권리나 사회적 규범을 위배하는 행동패턴이 지난 12개월 동안에 3가지 이상 나타나며, 그 중 1개 이상은 지난 6개월 이내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을 근거로 하였을 때 형우의 품행장애 심각도는 고도에 해당한다. 제한된 친사회적 정서 동반의 진단기준은 12개월 이상 다양한 대인관계나 사회적 장면에서 제한된 친사회적 정서의 2개 이상의 특성이 전반적(전형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근거로 사례에서 형우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학교 활동과 학업에 대한 수행에 대한 무관심을 보여왔으며, 중학생 때부터 타인이나 동물의 고통에 대한 냉담한, 즉 공감에 결여된 특성을 보여왔다.

해설 : 각 1점

<品行장애의 DSM-5의 진단기준 >

A. 다른 사람의 기본적 권리나 사회적 규범을 위배하는 행동패턴이 지난 12개월 동안에 다음의 15개 기준 중 3개 이상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중 1개 이상의 기준은 지난 6개월 이내에 나타나야 한다.

사람과 동물에 대한 공격성

1. 자주 다른 사람을 못살게 굴거나, 협박하거나 겁먹게 한다.
2. 자주 싸움을 건다.
3. 다른 사람에게 심한 신체손상을 줄 수 있는 무기를 사용한다.
4. 사람에게 신체적으로 잔인하게 대한다.
5. 동물에게 잔인하게 대한다.
6.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도둑질을 한다(노상강탈, 지갑 날치기, 강도, 무장강도).
7.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강제로 성행위를 하게 한다.

재산파괴

8. 심각한 파괴를 일으킬 작정으로 고의로 불을 지른다.
9. 다른 사람의 재산을 고의로 파괴한다(방화에 의한 것은 제외).

사기 또는 절도

10. 다른 사람의 집, 건물 또는 자동차를 파괴한다.
11. 물품이나 호의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피하려고 자주 거짓말을 한다.
12. 피해자와 마주치지 않고 사소한 것이 아닌 물건을 훔친다(파괴하거나 침입하지 않고 물건을 사는 체하고 훔치기, 문서위조)

중대한 규칙위반

13. 부모가 금지하는데도 자주 외박을 하며, 이는 13세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14. 부모나 대리부모와 집에서 같이 살면서 최소한 두 번 이상 가출, 외박을 한다. (또는 한 번 가출했으나 장기간 귀가하지 않음)
15. 무단 결석을 자주 하며, 이는 13세 이전부터 시작하였다.

B. 행동 장애가 사회적, 학업적, 또는 직업적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손상을 초래한다.

C. 18세 이상일 경우,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

다음 중 하나를 명시할 것:

- 312.81(F91.1) 아동기 발병형: 10세 이전에品行장애의 특징적인 증상 중 적어도 1개 이상을 보이는 경우
- 312.82(F91.2) 청소년기 발병형: 10세 이전에는品行장애의 특징적인 증상을 전혀 충족하지 않는 경우
- 312.89(F91.9) 명시되지 않는 발병:品行장애의 진단기준을 충족하지만, 첫 증상을 10세 이전에 보였는지 또는 10세 이후에 보였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확실히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제한된 친사회적 정서 동반: 이 명시자를 진단하려면 적어도 12개월 이상 다양한 대인관계

나 사회적 장면에서 다음 중 적어도 2개 이상의 특징을 보여야 한다. 이러한 특성은 해당 기간 동안 그 개인의 대인관계적, 정서적 기능의 전형적인 형태를 반영해 주며, 몇몇 상황에서만 가끔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명시자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출처에서 정보를 얻는 것이 필수적이다. 자기보고뿐만 아니라 그 개인을 장기간 동안 알고 있는 사람들(예: 부모, 교사, 동료, 친척, 또래)의 보고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후회나 죄책감 결여: 본인이 잘못을 저질러도 나쁜 기분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붙잡히거나 처벌을 받는 상황에서만 양심의 가책을 표현하는 경우는 배제해야 한다).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일반적인 염려가 결여되어 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자책하지 않거나 규칙을 어겨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다.

냉담, 즉 공감의 결여: 다른 사람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신경 쓰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은 이들을 차갑고 무정한 사람으로 묘사한다. 심지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경우에도, 자신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에 더 신경을 쓴다.

수행에 대한 무관심: 학교나 직장 또는 다른 중요한 활동에서 자신이 저조한 수행을 보이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 심지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에서도 좋은 성과를 보이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며 전형적으로 자신의 저조한 수행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린다.

피상적이거나 결여된 정서: 피상적이거나 가식적이고, 깊이가 없는(행동과 상반되는 정서 표현, 빠른 정서 전환)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기분이나 정서를 드러내지 않는다. 또는 얻고자 하는 것이 있을 때만 정서를 표현한다(다른 사람을 조종하거나 위협하고자 할 때 보이는 정서 표현).

현재의 심각도를 명시할 것:

경도: 진단을 충족하는 품행 문제가 있더라도, 품행 문제의 수가 적고, 다른 사람에게 가벼운 해를 끼치는 경우(거짓말, 무단결석, 허락 없이 밤늦게까지 집에 들어가지 않는 것, 기타 규칙 위반)다.

중등도: 품행 문제의 수와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의 정도가 “경도”와 “고도”의 중간에 해당되는 경우(피해자와 대면하지 않는 상황에서 도둑질하기, 공공기물 파손)다.

고도: 진단을 충족하는 품행 문제가 많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경우(성적 강요, 신체적 잔인함, 무기 사용,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도둑질 파괴와 침입)다.

10. 정답 : 선호의 MMPI 검사 결과 유의미하게 상승한 척도는 Pt 척도와 Si 척도이다. Pt 척도의 임상적 특징은 배경정보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실까봐 걱정되고 혼자서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염려된다.’는 것이다. SSCT에서는 ‘요즘들어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Si 척도의 임상적 특징은 배경정보에서 ‘점점 사람 만나는 것이 불편해진다’는 것이다. SSCT에서는 ‘참다운 친구는 없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이다.

해설 : 각 1점

P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래 지속된 심리적 고통이나 만성 불안 측정. 때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상승 가능하나 걱정 많은 성격형 측정. • 높은 점수: 불안, 긴장, 사소한 일에 걱정 많음. 내성적, 강박적 사고 많음. 불안정감과 열등감으로 발전. 대인관계에서 서투르고 타인 반응에 민감, 수줍음 많음. 단정하
----	---

	<p>고 꼼꼼하며 신뢰성 있으나 문제해결에서 창의력이 부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척도들은 70이하, 척도 7만 70이상으로 상승: 강박적인 사람. • 척도 2 상승 시에 우울감과 우유부단이 두드러지고, 8이 상승 시에는 혼란과 사고장애가 나타날 수 있음. • 낮은 점수: 잘 적응하고 있고 공포나 불안이 없이 안정되고 자신만만한 사람. 꾸준하고 성공 지향적. 예전에 높았던 사람이 낮다면, 과거 불안이 너무 괴로워 이제는 걱정 안하기로 작정하여 과잉 보상한 결과임.
S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향성 높음, 외향성 낮음을 측정. 사회적 접촉 회피, 대인관계의 기피, 비사회성 등의 인성요인을 측정. • 높은 점수: 사회적으로 내향적, 수줍음, 현실회피적. 자기억제가 심하고 소수의 사람과 대인관계, 자신감 부족, • 극단적으로 높으면(75이상), 타인과의 관계형성이 부적절하고 냉담, 자기 비하적. • 척도 0과 함께 상승한 척도들은 사회적 적응상의 문제의 형태와 심각성을 나타냄. • 낮은 점수: 외향적, 사교적, 과시적, 적극적, 정력적. 극단적으로 낮으면 피상적, 진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근함이 없고 변덕스럽고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기회주의자. 3.4동반 상승 시 더욱 현저.

11. ㉠은 유동추론이다. 처리속도지표가 강점인 근거 처리속도 지표점수가 121점으로, 평균인 108.8과의 차이가 12.2로 임계값(11.42)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시공간 지표와 처리속도 지표의 합산점수간 차이는 -18점으로 임계값인 14.13을 넘어섰으므로 유의하다. 이는 시각적 정보를 분별하고 시각적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이 시각적 정보를 평가하고 정보간 관계를 통합하고 추리하는 능력보다 유의미하게 뛰어난을 의미한다. 작업기억 지표와 처리속도 지표간 합산점수간 차이는 -21로 임계값인 12.55를 넘어섰으므로 유의하다. 이는 시각적 정보를 분별하고 시각적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이 짧은 시간 동안 시청각 정보를 입력, 유지, 조작하고 주의집중하는 능력보다 유의미하게 뛰어난을 의미한다.

해설 : 각 1점

1) 기본지표척도		
(1) 각 기본지표척도들은 2개의 소검사로 이루어진다.		
(2) 각 기본지표척도 해석		
기본지표척도	소검사	해석
언어이해 (VCI)	공통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적 자극을 이해 • 단어를 이용하여 생각과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개인 능력 반영
	어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언어이해 지표 점수는 결정 지능이 우수하여 단어 지식, 정보 재인, 언어문제 추리 및 해결, 지식소통 능력이 뛰어난 것을 의미한다.
시공간 (VSI)	토막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적 정보 평가 • 시공간 관계를 이해하여 기하학적 구성을 할 수 있는 능력 측정 • 그림과 시각적 개념을 통해 생각하는 능력 측정

	퍼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시공간 지표점수는 시공간 추리, 부분과 전체 관계 통합, 시각적 디테일에 대한 주의, 시각-운동협응 능력이 우수함을 의미한다.
유동추론 (FRI)	행렬추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지식이나 문화적 기대, 결정 지식으로는 풀 수 없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 시각적 대상들의 근본적인 개념적 관계를 파악하고, 규칙을 찾아내고 적용하는 추론을 하는 능력 측정
	무게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유동추론 지표 점수는 귀납적양적 추론 능력, 전반적인 시각적 지능, 동시처리 능력, 추상적 사고능력이 우수함을 의미한다.
작업기억 (WMI)	숫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짧은 시간 동안 의식적으로 시청각정보를 입력하고, 유지하고, 조작하여 결과를 산출하고 반응하는 능력을 측정 • 작업기억의 과정은 다양한 학업적 노력으로 학습을 용이하게 해주므로 성취 및 학습과 관련성이 높음
	그림기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작업기억 지표 점수는 주의, 집중, 인지적 조절, 시각 및 청각 능력이 우수 • 작업기억 VS 유동추론 : 유동추론을 위해서는 작업기억이 항상 요구되지만, 작업기억만으로 유동추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처리속도 (PSI)	기호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결정을 위해 시각적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오류없이 파악하고 처리하는 능력과 함께 소근육 처리속도를 측정함 • 시각적 훑어보기와 같은 비교적 간단한 일을 처리하는 게 능숙하지 않다면, 더 복잡하고 새로운 과제를 위해서 아동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정신적인 에너지는 부족해짐. 따라서 처리속도 지표는 작업기억 지표와 같이 인지 효율 지표로 언급됨.
	동형찾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처리속도 지표점수는 단기 시각 기억, 시각 운동 협응, 시각 분별, 시각주사, 집중, 인지 유연성, 시험수행속도가 우수한 것을 의미함

(3) 기본지표척도의 강점 및 약점 분석

① 각각의 기본지표척도들을 지표점수평균(MIS)이나 전체척도(FSIQ)와 비교

② 비교 점수로 집표점수평균이 전체척도보다 선호된다.

③ 임계값 유의수준 : 통계적 유의미성을 나타낸다.(.01 / .05 / .10 / .15)

정혜영 전문 상담

2019년 9~11월 [모의고사] 강의 안내

모의고사 강의(10주)

강의명	강의 일시	강의 기간	개강-종강일	수강료
모의고사(10주)	금10:00~18:00	9주	9/20(금) - 미정	30만원

2019년 정혜영 전문상담 2개월 이상 기수강생 2만원 할인

교재 : 모의고사 문제지, 해설지, 보충자료

강의내용 : 2005년도 ~ 2019학년도까지 기출문제 분석을 바탕으로 최신 출제 경향을 반영한 모의고사 문제 풀이를 합니다.

1강(9/20)	모의고사 1회
2강(9/27)	모의고사 2회
3강(10/4)	모의고사 3회
4강(10/11)	모의고사 4회
5강(10/18)	모의고사 5회
6강(10/25)	모의고사 6회
7강(11/1)	모의고사 7회
8강(11/8)	모의고사 8회
9강(11/15)	모의고사 9회
10강(미정)	모의고사 10회

- 추석연휴로 인하여, 개강날짜가 늦춰진 이유로 10회차 강의 날짜는 개강 이후, 정확한 날짜가 추후 공지됩니다.
- 10시 ~ 13시30분까지 모의고사 시험을 실제로 보고 14:30부터 해설강의가 진행됩니다.
- 2014년 ~ 2019년 문제 유형과 난이도에 맞춰 모의고사 문제를 출제하며, 이를 풀어봄으로써 실전 감각을 익힙니다.
- 보충자료 제공이 필요할시에 제공되며, 보충자료 내용에 해당하는 문제가 출제 문제로 출제될 것입니다.
- 모의고사 1회 시험 후, 첨삭이 이뤄지며 첨삭을 통해 본인의 답안작성 방식, 문제 풀이 방식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상담이 이뤄집니다.

정혜영 전문상담 카페 <http://cafe.daum.net/echoing>